현대중공업가족

11
2017

태양열로 움직이는 선박

現代重工業 家族 2017년 11월호 (통권 29호)

이달의 표지 주인공

김준엽 군(수암병설유치원)
김종훈 과장(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의 아들

"세계 곳곳을 누비는 친환경 태양광선박"

준엽 군은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에너지로 충전하는 친환경 태양광선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선박 전면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가 생산되면, 이 전기를 동력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이죠.
친환경 선박인 만큼 각종 수중생물들을 선박 주위에 꼼꼼히 그려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노란색 종이를 번개 모양으로 잘라서 태양광 패널 위에 하나씩 풀칠하며 붙여 넣은 것이 눈길을 끕니다.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함께라면, 준엽 군이 상상한 친환경 미래선박을 만나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준엽 군은 아직 어린 유치원생이지만 그림 실력이 뛰어납니다. 요즘에는 '포켓몬스터'에 푹 빠져 각종 캐릭터들을 도화지에 따라 그려가며 그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또, 하늘을 나는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준엽 군은 매년 이맘때면 '사천 에어쇼'를 참관해 다양한 비행기를 타보고 파일럿 형들도 만난다고 하네요.
아직 자신의 그림이 사보 표지로 선정된지 모르는 준엽 군. 아마 11월 사보를 보게 되면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번 공모전이 준엽 군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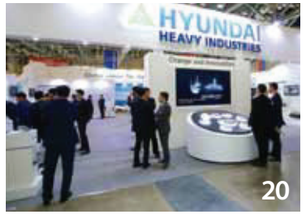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11

NOVEMBER | **현대중공업 가족** 2017년 11월호 **발 행** 2017년 11월 2일

hi, hhi
현대중공업
기업블로그 바로가기

Contents



기획1 이제는 공유 시대! '같이'의 가치

04 트렌드 따라잡기 / 공유경제
06 공유로 만드는 경쟁력
08 노하우를 공유해요

기획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 생존을 위한 변화
12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사람 · 일

14 현장을 가다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2부 선행조립과 크레인팀
18 자랑스러운 현중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19 뉴스 포커스
현대건설기계 벨지움 법인 개소
20 이달의 화제 코마린 2017
22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미포조선 전장설계부
24 이달의 도전 '혼놀족' 체험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신영미 사원
26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봉사모임 '다울회'가 '산업보안팀'에게
28 세계를 가다 중국
30 직장인 생활백서 상사 말 해석하기
32 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11월
34 비상상황 이렇게

지역 · 삶

36 지역 소식
현대예술관 키즈카페 '노리파크'
현대공고 명장공방 지원 사업 선정
38 이달의 모임
Ulsan Running Crew(URC)
40 맛있는 이야기 호계시장 / 명덕시장
42 자녀와 함께
전남 곡성 직업체험관
44 걷기 좋은 길 부산 기장 아홉산숲
46 가을의 낭만
태화강 100리길 자전거도로·산책로
울산 북구 매곡도서관
48 가볼만한 곳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50 알아봅시다
수능 'D-7' 컨디션 관리
52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박종진 씨
54 건강칼럼 혈뇨(血尿)
56 나를 만나는 시간 황혼기 부부관계

보람의 일터

58 뉴스 하이라이트
62 그룹사 소식
64 문화 포커스
대한민국 구상작가 대작 특별展
팬텀싱어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
66 축구단 소식
68 현중 가족 글마당
76 사우들의 추천 도서
78 생활법률
80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보타니컬 아트
81 만화
82 쉬어가는 페이지
83 이달의 명화

'공유'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

**자동차를 함께 쓰고, 헌 장난감을 나누며, 심지어 집을 공유하기도 하는 시대.
어느새 '공유'는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됐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현대인의 소유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저물어가는 소유의 시대, 부상하는 공유의 시대

공유경제는 이른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시간, 공간, 물건, 경험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소비 형태를 일컫는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공유경제로 연결된다.

공유경제는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촉발된 실업자의 증가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지나친 소비주의 등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과잉소비사회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잉여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부수적인 수입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공유경제가 기업, 개인, 사회가 모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공유제공자는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공유이용자는 비용을 절약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공유기업은 이들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형태로 이익을 얻는다. 새롭게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업의 투자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 최소화 된다. 그만큼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 사회적으로도 선순환의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평일 출퇴근을 할 때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평일에는 집과 회사가 가까워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B라는 사람은 주말에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때만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B는 주말에만 쓸 자동차를 굳이 구입하는 것은 아깝고, 1주일에 1번씩 렌터카를 쓰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만약 A가 주말마다 B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다면 어떨까? A와 B 모두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C도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본다. '1인 1대'씩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주차장을 신설할 자원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IT산업의 발달을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주체는 개인이 되었고, 정보 공유가 쉬워져 자원의 거래 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로 인해 새롭게 확대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 그와 정반대로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시장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숙박비,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공구나 한 번 읽고 말 책은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머지 않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곧 '행복'이었던 시대는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유경제 인기몰이, 어플 5인방

•전 세계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우리 집의 남는 방, 잘 사용하지 않는 별장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빈방 공유 서비스다. 공급자는 빈방을 통해 수익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편안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게 됐다. 특히 호스트를 통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문화·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알짜배기 여행 팁을 얻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언제든 내 차처럼 '쏘카'

유류비부터 자동차 보험, 세금까지 내 차를 갖게 되며 늘어나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카셰어링 서비스다. 회원가입 후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해두면 가까운 쏘카존에서 차량을 예약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어 특히 단시간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능력을 빌려드립니다! '퀘스트 러너'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일거리, 재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예를 들면, 수영 실력자와 수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 중국어 실력자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 능력이나 기술, 장비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반대로 나에겐 없는 능력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쑥쑥 자라는 아이들 옷, 이제 사지 마세요! '키플'

아이 옷을 쉽고 합리적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로, 아이 옷을 정리해 연락하면 택배 기사가 옷을 수거해간다. 수거된 옷은 까다로운 검수를 거쳐 A급 상품에 한해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은 무료로 나눔을 하거나 아프리카 혹은 제 3세계로 기부된다. 키플에서 10벌 구매 시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약 3만 원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남는 공간 마음껏 쓰세요! '모두의 주차장'

드라이버들을 위한 주차 공간 공유 서비스다. 기본적으로 주변의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공유해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설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착한 서비스다.

SHARING ECONOMY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드는 지식공유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과 노하우는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지식은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임직원들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
노하우가 공유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스퀘어, 작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분할회사와 현대미포조선이 참여하고 있는 하이스퀘어는 사우들의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돕는 소통 공간이다.

하이스퀘어는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활동하도록 해, 신변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유로운 댓글과 답변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키며 건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게시물에 대한 추천과 만족도를 평가해 양질의 지식을 선별하고, 공감도가 높은 제안(20건 이상)은 담당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검토가 의뢰되는 등 양과 질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면서 하이스퀘어는 지난해 1월 오픈 이래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 20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약 1천500여명의 사우들이 방문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록된 게시글은 약 1천여건, 댓글은 1만여개에 달한다.

하이스퀘어로 인해 회사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우들의 의견 수렴도 편리해졌다. 실제로 문서관리시스템, 직급체계 간소화, 전자결재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기 전 하이스퀘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하이스퀘어 – 메인페이지

▶ 하이스퀘어 – Q&A 게시판

현업 노하우 공유 '자율직무교육'

현업 부서에서는 사우들이 스스로 학습팀을 구성해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현업자율직무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강의는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젊은 사우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교육 과정을 처음 개설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만5천여명(누적)의 사우들이 수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130여개의 과정이 운영될 만큼 활용도가 높다.

2010년 현업자율직무교육을 도입한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지금까지 246개 과정에 1천900여명의 사우들이 참여하며 지식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전문성을 갖춘 사우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설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각 설계 부서 사우전체를 대상으로 매주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은 기초–중급–고급의 3단계로 나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업무 능력 향상과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미래 기능인력 양성에도 일조

사우들의 '지식 공유' 활동은 회사 밖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며, 미래 기능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로 지역의 공업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멘토링(Mentoring) 활동은 조선 3사의 기능장 자격 취득자들의 모임인 '기능장회'가 주축이 되어 이뤄진다.

이들은 용접을 비롯해 기계가공, 전기, 배관 등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 기술자로, 교과서만으로 습득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또한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답사, 봉사활동 등을 함께 하며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직업의식도 고취시키고 있다.

기능장회 회원들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용접기능사, 특수 용접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김민우 사우(26세, 대조립부)는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 선배들의 모습에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됐다"며, "선배들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유되지 않는 지식은 썩은 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나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의 경쟁력이 될 때 희망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우들의 다양한 노하우를
블로그 **'hi,hhi'**에서 만나보세요!

나만의 노하우, 나누면 배가 된다!

**사소한 취미부터 전문기술까지 사람마다 자랑할 만한 재주와 특기를 갖고 있다.
이를 더욱 갈고 닦으면 노하우가 되고,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이 된다.
각자의 노하우를 조직 내 동료나 지인들과 나누고 있는 사우들을 소개한다.**

"초보자 행동도 분석하며 배우는 탁구"

이수주 사우
(41세,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15년 전 입사 때 현중탁구회에서 배웠던 스포츠 기술들을 동호회 신입회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울산 일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세 교정과 실전 게임 등의 탁구강좌를 진행한 지도 벌써 5년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며 저도 덩달아 배우게 되는데,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옛말이 결코 그릇되지 않습니다. 탁구선생으로서 여러 교육생들의 자세를 바로잡고 살피며, 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총 7개 리그로 운영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2008년부터 최상위리그에 출전해, 수 차례 우승을 맛본 실력자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생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2010년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이후 한 방송사에서 성공비결을 설명하며, "못하든 잘하든 다른 선수들의 수영법을 모니터링하고, 모방할 부분을 찾아 훈련과정에서 나만의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탁구기술만큼이나 이번 사보를 통해 알리고 싶은 노하우는 바로 '초보자라도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훌륭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그를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독서 노하우"

이혜진 사우
(28세, 현대삼호중공업 아나운서)

매년 초, 1년을 계획할 때 저는 독서와 관련된 계획도 함께 세우곤 합니다. 올해에도 저는 '책 20권 읽기'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울만한 독서량은 아니지만,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사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저는 매년 다이어리에 공간을 할애하여 독서 섹션을 만듭니다. 한 장은 '독서 리스트',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희망도서 리스트'로 큰 제목을 달아둡니다. '독서 리스트'는 말 그대로 제가 읽은 도서를 기록해두는 장입니다.

번호를 1번부터 차례로 매기고, 책 제목과 작가 이름을 적고 옆에는 독서 기간을 적습니다. 독서 기간까지 추가로 적어두는 이유는 제 독서 속도에 조금이나마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독서 리스트'는 지인에게 책을 추천해줄 때도 용이하게 쓰입니다.

또 다른 장, '희망도서 리스트'는 제가 독서하기를 희망하는 책들의 목록입니다. 처음에는 SNS에 지인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한 게시물을 보고 다음 번에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리스트를 적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적어내다 보니 독서에 대한 욕심도 생기곤 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이렇게나 많으니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빨리 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두 부분 중에서 '희망도서 리스트'에 더 애정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독서 편식이 심한 편이라 제가 주로 읽는 책은 인문학, 경제학 등의 책이 아닌 소설이나 에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서 리스트'엔 온통 에세이들만 넘쳐났죠.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해야겠다는 목표와 함께 '희망도서 리스트'에 다방면의 책을 차곡차곡 기록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록방법을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연말, 그리고 연초에 독서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실 때 저만에 독서 노하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견 건강하게 키우는 법"

어제원 기원
(45세,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저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강아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넘는 애견인 가운데 '내 강아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일부 애견인들은 강아지가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주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강아지가 어렸을 때에는 열심히 접종을 하다가도, 다 크고 나서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예방접종은 대부분 치사율이 높거나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기적인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종합백신, 코로나장염, 전염성기관지염, 개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5가지는 꼭 접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콜릿과 커피에는 심장과 신경계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 건포도는 소화기에 손상을 주거나 간과 신장에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양파나 마늘, 부추는 적혈구에 손상을 입히거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은 잘 소화되지 않고, 큰 덩어리는 장 안에 정체하며 부패되어 강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은 당 대사이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껌 5개 정도면 강아지를 죽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와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애정만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가족 같은 강아지를 갑작스레 떠나 보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변혁)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사업 모델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 DT로 내딛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2015년부터 3%를 밑도는 저성장률을 기록하던 우리 경제는 제조 중심의 핵심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경영 패러다임이 업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은 물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갔다는 전략이다.
제조업과 ICT 융합 그리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이루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현대중공업그룹도 생존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제로 재편을 예고했다.

왜 우리는 변해야 하는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BP같은 오일 메이저가 주로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애플, 구글, 아마존처럼 데이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로 순위가 변했다.

정보혁명의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은 시대의 진보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고, 선도기업들은 앞 다투어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전세계를 기술로 변화시키면서 스마트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했는지의 여부가 기업의 경쟁우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 환경에 있어 중후장대한 사업, 노동 집약적 제조 및 판매 사업,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력 기반의 경쟁우위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술 중심 경영혁신을 선언하고 ICT기획팀, 그룹 통합 ICT혁신센터 설립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올해 3월에는 최고 디지털 책임자(CDO)를 영입, 전통적 제조 방식에서 탈피해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제조 중심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사업부별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9월 26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발표회'를 가졌다.

디지털 혁신으로 그리는 미래

이날 발표회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을 설계와 생산현장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품질·안전데이터 통합관리 △생산효율 증대 △지능형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경제적 효과는 2021년까지 약 2조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운영 비용 절감으로 810억원, 주력 사업 강화로 1조 80억원, 신사업 매출 창출로 9천380억원의 이익 창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조선사업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영업부서에서 확보한 고객사의 수많은 자료들은 데이터로 누적된다. 우리는 이 데이터 중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정제해 꼭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빅데이터). 이 기술을 통해 수주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의 정보를 미리 선점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곧 차별화된 영업력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설계와 생산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수천 척에 달하는 선박의 설계 및 건조 경험, 생산 실적이 고스란히 데이터에 녹아 생산 이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3D 모델이 설계된다. 현실의 공장과 같은 가상의 공장에서 작업량을 체크하고, 설계의 오작 여부를 확인한다.

분석에 사용된 선행 데이터들은 가시화된 프로세스로 정립되어 생산설비 및 공정에 각종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측하고, 품질 결함을 최소화한다. 숙련공의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해 작업자별 품질 편차가 최소화되고,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위험 요소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작업장에서 중단 없이,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육상에서는 그룹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선단 관리 관제센터, 지능형 솔루션,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단일 제품 제조 및 판매의 수주 사업에서 영업-제품개발-인도-운영 및 유지보수-폐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Life Cycle Management/제품 수명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임직원 한 마음으로 변화에 동참해야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하나의 사업 조직만으로는 이끌고 갈 수 없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전사,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디지털 문화 DNA 이식을 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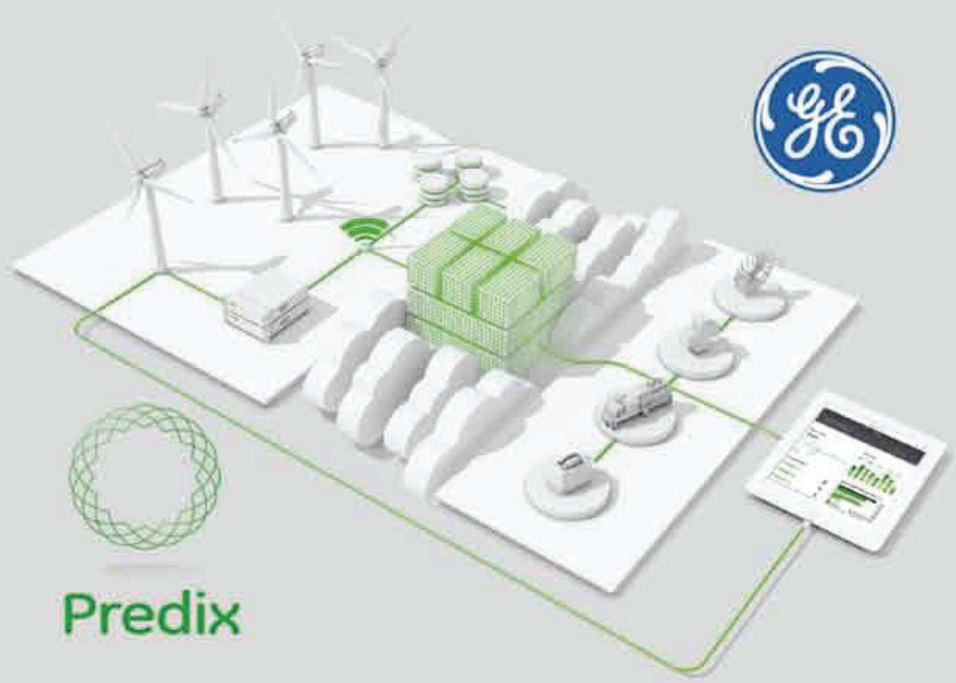
또, 각 사업별 디지털 조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마다 별도의 추진팀을 구축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현업에서 필요한 정확한 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는 등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변혁도 빼놓을 수 없다. ICT 기반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여 잠재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쟁이 시작되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이 위기를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삼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100년 기업' GE, 4차 산업혁명 견인

**국내외 선도업체들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의 주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또는 ICT 융합을 통한 제품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내다보고, 수년 전부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하 GE)의 생존법을 배워본다.**



출처 : https://www.gereports.kr/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

GE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넘게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발명왕 에디슨에 의해 1892년 설립된 GE는 전통과 혁신의 아이콘이다. 전구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 운송, 항공, 산업재, 발전, 의료장비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 회사는 2000년대 들어 금융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가더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

2016년 1월, GE는 상징과도 같은 가전 사업을 중국 하이얼(Haier)에 매각했고, 조명 사업 부문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GE는 발전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부문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산업용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빅데이터를 통한 애프터서비스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GE는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입히고 있다. 공장시설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대화 및 정보 공유로 최적화된 생산공정을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제조의 서비스화' 라는 혁신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1892년에 설립된 이 회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먼저 30만명에 이르는 각 분야의 직원 중 회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GE 글로벌 리서치는 기계 학습을 가르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 과학자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400여명이 GE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료했고 50여명의 과학자가 디지털 분석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GE 기계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모델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객의 비용 절감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 개발, '제조업의 서비스화' 가속도

이제 GE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품을 유지, 보수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비스 매출액은 이익률이 80% 수준에 이른다. GE는 항공기 엔진 리스 사업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고객사에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GE가 서비스 관련 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각 사업 부문의 비용을 절감,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 고객의 신뢰를 얻고, 기계 장비, 운영 시스템,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한꺼번에 제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계 장비 판매를 늘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GE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GE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15년 8월 프레딕스(Predix)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했다.

프레딕스는 공장 내 모든 장비에 센서를 부착한 뒤 여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각 산업의 기계, 설비와 운영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독자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공장이 거대한 컴퓨터, '브릴리언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형 플랫폼 프레딕스는 GE가 제공하는 모든 기계 장치, 설비에 센서 등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가스 터빈, 비행기 엔진, 각종 공장의 설비, 공항의 관제탑, 항만 시설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며, 이러한 데이터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든다.

또, GE는 공장의 물리적 정보를 모두 데이터화해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 이와 똑같은 디지털 공장을 만든 뒤 운영 모델로 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GE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GE 공장 중 18개를 '브릴리언트 팩토리(Brilliant Factory)'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 설계와 제조, 서비스 등 모든 과정과 운영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GE는 비행기 엔진, 기관차, 가스와 풍력 터빈의 마모와 손상을 데이터로 파악해, 언제 수리가 필요한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상공을 비행 중인 비행기 엔진의 부품 정비 스케줄은 캘리포니아의 GE 서버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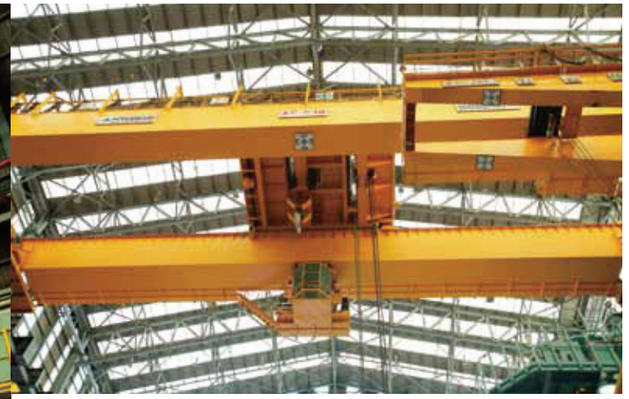
이외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은 GE 제품의 운영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풍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을 최대 20% 늘렸고, 기관차당 연 3만2천갤런의 연료와 17만4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한다. GE는 고객들에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가상의 모델을 70만개 이상 전달했으며, 올해 말까지 그 수는 100만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산업별 고유 니즈를 해결하는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 탈바꿈한 GE는 2016년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아울러 GE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협력함으로써 프레딕스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산업 인터넷 비즈니스를 확대해 2020년까지 적어도 120억 달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i,hhi'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선박의 심장, 베테랑의 손길로 생명을 얻다!

가을비가 내린 뒤 날이 제법 쌀쌀해졌지만, 대형엔진조립 2공장에서는 한 여름만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들은 "흐르는 땀방울이 행여 엔진을 상하게 할까 여름 내내 전전긍긍이었다"며, "서늘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요즘이 반갑다"고 활짝 웃는다.
세계 최고의 명품 엔진을 생산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엔진조립2부 선행조립과 크레인팀을 만나보자.



대형엔진조립의 시작과 끝

'선박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형엔진은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프레임 박스(Frame Box), 실린더 프레임(Cylinder Frame) 등 3개 블록과 각 블록 내부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 피스톤(Piston) 등을 비롯 2만여개의 부품이 결합돼 만들어진다.

엔진 제작에 포함되는 각각의 블록들은 그 엄청난 무게와 크기로 인해 대부분 크레인팀의 손을 거쳐 제자리를 찾게 되며, 이러한 조립작업을 통해 완성된 엔진의 무게는 약 600톤에 달한다. 조립 후 시운전을 마친 엔진은 선박에 싣기 전 야적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완성된 엔진을 이동 가능한 상태로 분해하는 일 역시 크레인팀의 역할이다. 말 그대로 대형엔진조립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셈이다.

완벽한 조립을 위한 사전 점검은 당연한 일. 대형엔진조립2부 크레인팀은 엔진 조립분야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작업 전 준비절차에서부터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신호수들은 결박 전 블록과 부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물론, 크레인의 위아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정확한 위치에 슬링 벨트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운전수들 역시 통신 장비를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크레인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는지를 빠짐없이 살핀다. 대형엔진 2공장의 크레인은 모든 준비 작업에서 'OK' 사인이 떨어진 이후에야 움직일 수 있다. 세월과 함께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의 이러한 작업 방식은 세계 최고의 선박 엔진을 만드는 크레인팀의 보물같은 노하우다.

또, 크레인팀은 공정속도와 안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블록 출고 시 작업자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이동을 돕는 '이동식 작업대'를 제안,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렸으며, 최근에는 결박한 자재가 중심을 잃고 기울지 않도록 하는 '리프팅 빔을 슬링 벨트 상부에 설치해 더욱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명품'의 전제조건은 '안전'

"복명 복창 철저 실시!" 대형엔진조립2공장 내부에 들어서면 온갖 기계의 소음을 밀쳐내는 힘찬 안전구호 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운다. 크레인팀 팀원들은 수십, 수백 톤의 블록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도중에도 결코 일을 서두르거나 독촉하는 법이 없다. 대신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큰 목소리로 사업본부에서 가장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

크레인팀은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최고 안전팀' 상을 수상한데 이어, 7월에는 '무재해 4600일 달성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2004년 공장 설립 이후 무려 13년간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크레인팀 권혁진 팀장(54세)은 "가장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나와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명품 엔진 생산의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매일 아침 실시하는 TBM활동을 통해 서로를 안전 작업을 격려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팀의 고참인 김상규 기원(55세)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크레인팀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고 있다.

투철한 안전의식을 갖춘 크레인팀 팀원들은 공장 전체의 '안전 지킴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다른 팀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 내에서 동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보이면, 즉시 솔선수범해 이를 처리한다. 현장에서 베테랑의 의견, 특히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강력한 의지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00톤의 책임감을 나누는 동료애

신호수와 운전수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크레인 업무에서 팀워크는 필수적이다. 크레인팀은 퇴근길 당구 시합을 통해 선·후배간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곤 한다. 또, 회식이 있는 날에는 개인 약속을 미루고서라도 주·야간 근무자가 모두 참여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크레인팀 회식의 가장 큰 특징은 '1,1,9원칙을 지킨다는데 있다. 회식에서는 1가지 술로 1차까지만 마시고, 모든 팀원이 9시 이전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날 근무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다.

대신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오락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사우(44세)의 주도 아래 점심시간 직접 물회를 만들어 먹거나, 주말을 이용해 일산해수욕장에 모여 붕장어를 구워먹으며 끈끈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권혁진 팀장은 "함께 지낸 오랜 시간이 가족과 같은 동료애를 만들어주었다"며, "우리의 자랑인 완벽한 팀워크로, 600톤의 엔진을 안전하게 들겠다"고 말했다.

“기능 한국의 선두에 현대중공업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18회 연속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능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열린 ‘제 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조성용 사우(21세)가 철골구조물 직종에서 금메달을, 김형욱 사우(19세)와 허구민 사우(19세)가 각각 배관과 CNC선반 직종에서 동메달을 따내, 전원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딴 조성용 사우는 지난 2014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판금 직종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제 43회 브라질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철골구조물로 직종을 바꿔 다시 기능올림픽 도전에 나섰다. 이후 2년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전담교사와 함께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금메달의 꿈을 이뤘다.

조성용 사우가 금메달을 딴 철골구조물은 주어진 도면을 해석한 뒤 두꺼운 철판과 파이프 등을 가공해 과제물을 만드는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소속 선수들은 지난 2013년 제 42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으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전통 강호로 손꼽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해 금메달 1개를 따냈고, 이후 1983년 오스트리아 대회부터 지금까지 18회 연속으로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국제기능올림픽에 총 100명의 선수를 출전시켰고, 이 가운데 96명(금 48개, 은 15개, 동 11개, 장려 22개)이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는 매 대회마다 전문 기술교사와 선수들의 1 대 1 교육을 통해 기출과제부터 신유형의 예상과제까지 철저히 대비해 얻은 쾌거였다.

올해에는 출전선수들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전지훈련을 받으며 실전감각을 키웠다. 이러한 선진적인 기술교육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세계 각국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을 찾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내 기술교육원에 기능올림픽 종목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기능인력 교육체계를 갖춰, 매 대회마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차기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물론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진행해 기량 향상을 이끄는 등 미래 기능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럽 시장 확대로 글로벌 톱5 도약한다!”

현대건설기계가 유럽지역 통합 신사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10월 7일 공기영 사장과 필리페 무이터스 벨기에 경제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지역 통합 신사옥 준공식을 가졌다.

3만여평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된 신사옥은 대형 부품 물류센터, 전시장, 교육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부품 물류센터는 수용능력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유럽지역의 부품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건설기계는 교육센터를 기존보다 3배 확장해 현지 딜러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유소년 축구단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현지 인지도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유럽에서 지난해 대비 10% 성장한 3천8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유럽지역에서 지난 1분기 892억원, 2분기 979억원의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2.2%로 상향되는 등 대외환경도 긍정적이다.

공기영 사장은 “이번 신사옥은 유럽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2023년까지 글로벌 매출 7조원을 달성, 글로벌 톱5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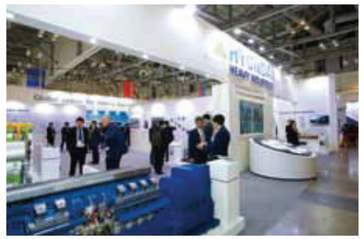
지난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건설기계는 ‘맞는 옷’을 입고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수주산업을 기반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양산산업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확립, 고객의 요청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고, 이는 다시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상반기 국내 굴삭기 누적 판매량 2위를 기록했으며,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량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이들의 본격적인 비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첨단 신기술로 불황 돌파구 마련!

조선 · 해양산업의 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7 국제조선해양대제전(마린 위크/Marine week)'이 지난 10월 2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국제 조선 · 해양산업전시회인 코마린(KORMARINE)을 비롯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 항만 · 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 등 세 개 분야의 통합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친환경·스마트 기술 관람객 이목 집중

현대중공업그룹은 코마린 전시장에 274제곱미터(약 83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코마린은 지난 4월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그룹 전시인 만큼, 그룹 조선 3사와 각각의 독립법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연료인 LNG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LNG 연료공급시스템, LNG 재액화시스템, LNG 종합실증설비 등 LNG 운반선 및 LNG 추진선과 관련된 설비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ICT를 활용해 선박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선박 경제운항시스템 등 조선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첨단 선박 솔루션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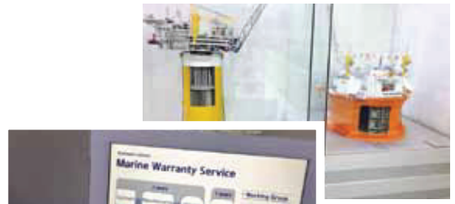
이외에도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비롯한 다양한 원유·가스생산설비 등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와 함께 본격적인 발주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 설비도 홍보했다.

독립 법인 종일 고객상담 북적

코마린(KORMARINE)은 1978년 조선기자재 전문 전시회로 시작해, 현재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또한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SMM), 중국 마린텍(Marine Tech), 노르웨이 노르쉬핑(Nor-Shipping) 등과 함께 세계 4대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 규모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1990년부터 코마린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앞선 기술력을 소개하며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는 45개국 1천여개사가 코마린 전시에 참가했으며, 4만5천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전 세계 조선·해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맏형으로서, 장기화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나서 귀감이 됐다.

전시 기간 동안 1천700여명의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이 방문해 ABB, 에머슨(EMERSON) 등 국내외 유수 조선·해양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기술과 제품들을 관심 깊게 둘러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망라되어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전시관에도 수많은 참관객들이 방문해, 전시관 한 편에 마련된 고객 상담 코너에는 하루 종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시 준비를 담당한 현대일렉트릭 이영관 대리(34세, 영업지원부)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뒤 현대일렉트릭이 집중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전시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이 보여준 관심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코마린 전시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이 심기일전하여 침체된 산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스마트한 전장 기술 확보로, 미래 경쟁력 드높인다!

임상원 부장

부서장 인사말

전장설계부는 전기, 전자, 통신, 제어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및 전장품 설계를 통해 선박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전장 기술에 발맞춰 최고의 설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직능별로 전문화된 4개의 과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설계부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부서 슬로건을 바탕으로 'VISION 2021'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원이 하나로 뭉쳐 기술개발 및 원가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설계부는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최고 중형 조선소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 자랑거리

선박 배선용 차단기 자동 선정 소프트웨어 개발

현대일렉트릭 용인 R&D센터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선박의 전기 계통 고장 전류, 케이블(Cable) 열적 한계, 부하 특성을 고려해 차단기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6회 선박해양설계 연구발표회' 선실/전장분야에 출품 및 발표돼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 실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과별 업무 소개

전장 1과 각종 시스템 구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동력 시스템과 항해 중 망망대해를 밝히고 선원들의 생활에도 꼭 필요한 조명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 LNG선과 다목적 특수선 등 고도화된 전기 추진방식 선박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조선 설계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장 2과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항해통신 시스템과 선내의 각종 장비의 문제점을 원격으로 점검·진단 및 인터페이스를 관장하는 제어시스템 그리고 안전을 위한 화재감지 및 비상경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전자장비가 첨단화됨에 따라 관련 신기술을 선박에 접목해 스마트십(Smart Ship)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장 3과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각종 전기선로와 전기장치의 배치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종별 최적화 된 표준선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경제 설계 활동으로 주력 선종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과원 모두가 '가장 소중한 고객은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더 쉽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장 4과 당사의 전략 선종인 로팩스(RO-PAX)의 전장 관련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형 크루즈선의 건조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설계 기술 개발, 각종 규정 분석 및 기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설계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전략 선종의 목표 점유율 달성을 향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목! 이 사우 – 권오욱 신입사원

올해 7월에 입사한 권오욱 사우는 스페인어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학창시절 여행을 정말 좋아했다는 권 사우는 해외 여행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며 외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본 전공인 전기공학과는 전혀 무관한 스페인어를 배우러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떠난 그는, 반년 후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만큼 스페인어를 구사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3년전 콜롬비아의 친구가 보내준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하네요.

'혼자'여도 나는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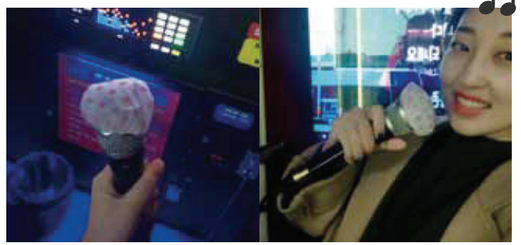
최근 1인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혼놀족(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연일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혼놀족을 타겟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가 소개되는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신영미 사원(24세)도 하루에 2~3시간,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주일간 '혼놀족' 체험에 나섰다.

'혼놀족' 체험에 나서는 신영미 사우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1일차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요~♬

항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노래방을 난생 처음 혼자 갔습니다. 입구에서 '혹시 사연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들어 마음 한 편이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 가보니, 우려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부르지 못했던 발라드부터 고음이 많은 노래까지 신나게 부르다 보니 묵혔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일차

가을은 '독서'의 계절~

오늘은 대형서점에 다녀오는 것을 택했습니다. 특히 서점에서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은 제가 꿈꾸던 로망이기도 했기에, 도전 중에서 가장 기대되기도 했죠.
물론 1일차였던 노래방에 비해서는 쉬운 난이도였지만, 저에게는 뜻 깊은 과제였습니다. 서점을 돌아다니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신간을 구경하다 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서점을 나서며 오랜만에 책을 구입해왔는데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들었답니다.

3일차

멀고도 험한 '혼밥'의 길

집에서 먹는 혼밥이 아닌 식당에서 먹는 혼밥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밖에서 혼밥을 시도해 본적이 없어, '먹는 도중 지인을 만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도전인지라 당당하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할 일이 없어 뻘쭘해진 저는 연신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게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밖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온 저에게 '혼밥'은 멀고도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4일차

어둠이 내려앉으면, '혼영'이 딱!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 주제를 '혼영(혼자 영화보기)'으로 정했습니다.
'감동적인 것을 볼까, 아님 재미있는 소재를 볼까.' 10분간의 고민 끝에 휴대폰으로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굳이 매표소에 가지 않아도 티켓을 뚝딱 예매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영화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제외하곤 모두 삼삼오오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곧 주위는 어두워졌고, 혼자 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는 영화 감상에 빠져들었습니다.
4일차가 되고 나니,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어느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영' 어떠세요?

5일차

나만의 '취미' 만들기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혼자 등록하는 게 싫어 배우지 못했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캘리그라피(Calligraphy)'인데요.
캘리그라피는 붓이나 펜을 이용해서 멋진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집 주변에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신설되어 이번 기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 작품, 어떤가요? 멋스럽죠? 저만의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일차

모든 게 완벽했던 산책, 그뤠잇!

기분 좋은 가을 바람에 가만히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무작정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여유를 가지고 목포 시내 버스여행을 떠났는데요.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 크고 작은 고민들도 내딛는 발걸음마다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이때의 감정과 분위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열심히 주변 풍경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다음 번엔 장거리로 '나 홀로 여행'도 떠나보려고 합니다.

7일차

혼자서 요리도 척척!

대망의 도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멋지게 기념하고자 동료 사우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파스타와, 닭볶음탕, 소고기 리소토로 메뉴를 정하고,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조리까지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하니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다들 "맛있네~"라고 말해줘 고마웠습니다.

〈도전을 마치며〉

항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온 저에게는 '혼자 하기'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전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고, 제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혼자여도, 혼자여서 즐거운 일상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에도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이들이 있다. 바로 산업보안팀 사우들이다. 현대미포조선 사내 봉사모임 다울회는 365일 회사 보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사보편집실에 손을 내밀었다. 기쁨과 넉넉한 웃음이 가득한 감사의 현장에 동행해본다.

마음에 걸렸던 명절 인사

긴 연휴가 끝나고 모두가 오랜만에 출근하는 길. 다울회 황남환 회장(42세)은 여느 때처럼 정문을 지나며 "연휴 잘 쉬셨어요?"라고 산업보안팀 사우들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한다.

"가족들과 명절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텐데, 무심코 건넨 인사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지만 말고 표현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보편집실을 찾게 됐습니다."

다음날 다울회 황남환 회장과 김형록 총무(38세)는 양손 가득 피자를 들고 산업보안팀 초소를 찾았다. 항상 서서 근무하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에게 에너지를 듬뿍 전하고 싶은 다울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산업보안팀 장동진 반장(59세)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들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챙겨줘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보안이 뚫리면 동료들이 흘린 소중한 땀방울이 헛수고가 된다는 각오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줍은 미소와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산업보안팀 이종호 사우(41세)는 "일과 후 사내 정화활동 등 늘 회사를 위해 봉사해주는 다울회 회원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며, "배도 부르지만,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다"고 말했다.

엄격한 보안관리 이면의 따뜻한 마음

산업보안팀 대원들을 떠올리면 업무의 특성상 건장한 신체와 강한 인상이 연상되지만, 사우들에게 인사를 할 때만큼은 언제나 웃음이 넉넉한 얼굴이다.

다울회 김형록 총무는 "우리 미포가족들 중 산업보안팀 사우들에게 고맙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출근길에는 사우들에게 긍정의 힘을, 퇴근길에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힘을 가득 실어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모두 71명의 사우들로 구성된 현대미포조선 산업보안팀은 6개 반에서 입출입 인원 및 차량 통제, 자재검수 및 반출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3곳의 사외공장 및 방어진 체육공원 등도 3교대로 분담해 지키고 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선행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한 대원이 무단으로 자재를 반출하려던 차량을 적발해 '우수성과 즉시 포상'을 받기도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를 묵묵히 지켜주는 그들에게 사우들의 따뜻한 마음이 올 겨울동안 추위를 녹여주는 행복한 추억이 되길 기대해 본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보세요!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세계 경제의 큰 손, 본격화된 대국의 굴기(崛起)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중국은 최근 제 19차 당대회에서 G2(미국, 중국)를 넘어, "2050년 세계 유일의 최강국이 되겠다"며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에 14억이라는 인구가 전방위 산업에서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돌릴까? 따라잡힐까?" 조선업 맹렬한 '추격'

중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후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규 발주 감소로 수백 개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중국 조선소들은 거대한 조선그룹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영 조선그룹인 코스코(COSCO), 상하이외고교(Shanghai Waigaoqiao), 후동중화(Hudong Zhonghua) 등의 조선소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데 이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성공하는 등 건조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 조선소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한편, 자국 조선소에 발주를 넣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이지만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는 현재까지 총 27척의 선박을 중국 선주사에 인도하는 등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CSCL사의 1만9천TEU급 컨테이너선 '글로브(Globe)호'는 2014년 세계 우수 선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 건설장비 시장에서도 현대중공업그룹이 약진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의 성장과 투자 확대로, 건설장비 수요 증대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2017년 상반기 중국에서 매출 800여억원을 달성했다. 오는 2023년까지 현대건설기계는 해외법인을 구축하는 등 폭넓은 영업망을 확보해 글로벌 톱5의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돋보이는 '팔색조' 매력

천안문 광장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만큼,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그 매력이 천차만별이다.

먼저 수도 '베이징'은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사건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는 '천안문 광장'을 시작으로, 대륙의 스케일을 맛볼 수 있는 '자금성'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만리장성', 서태후의 별궁 '이화원'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관광지가 수두룩하다.

세계 4대 문명 고도 '시안'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수십만 병마용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진시황 무덤'부터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 '서유기'에 삼장법사가 경서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탑인 '대안탑'까지 중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티전이기도 하다. 윈난성에 위치한 '리장'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해발 2천400미터에 위치해 있다. 티베트를 넘어 네팔과 인도까지 이어지는 최대 무역로 '차마고도'의 시작점이 바로 리장이다.

리장의 구시가지 '여강고성'에서는 소수민족과 티베트의 영향을 받은 목조건물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빙하가 녹은 물이 골목마다 흐르는 리장의 수로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만리장성

리장

중국에서 보내온 이야기

한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웃 나라지만, 문화와 풍경이 전혀 달라 의외로 이색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중국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펼쳤던 **현대건설기계 송정호 부장**(46세)의 경험담을 통해 중국의 색다른 면모를 알아보자.

중국의 신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는 무엇인가요?

중국은 '춘절(우리의 설날에 해당)'을 비롯해 단오절, 중추절 등의 명절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명절이지만 문화나 전통 음식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가장 놀라웠던 문화 중 하나는 명절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 입니다. 명절을 비롯해 개업 축하 등 큰 잔칫날에 중국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기념하곤 합니다.

폭죽을 터뜨린다고 하면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연상되지만, 집에서 하는 폭죽놀이는 아름답기보다 시끄럽고, 폭죽의 연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중국 대도시에서는 명절에 폭죽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하거나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중국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고객 및 딜러들을 만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판촉물입니다. 한국에서는 판촉물로 우산이나 시계를 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우산과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산과 시계의 중국어 발음 때문인데요. 중국어로 우산은 '雨伞(yǔsǎn)'이라고 씁니다. 이 때 산(伞)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흩어진다'는 뜻의 산(散, sǎn)과 같아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계를 선물하다'라는 뜻의 '送钟'의 발음은 'sòng zhōng'인데, 이는 '장례를 치르다(送终)'를 의미하는 말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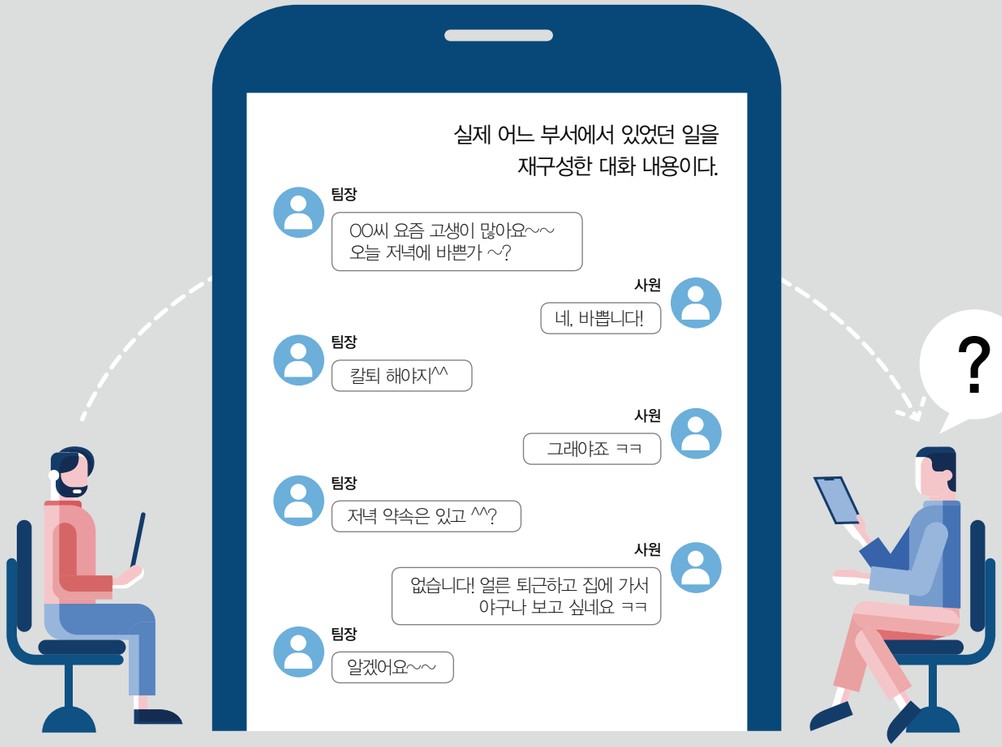
중국의 추천 장소, 먹거리 소개 부탁 드립니다.

도시의 복잡함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다면 중국 운남성 여행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운남성은 손꼽히는 천하비경이 모여있고, 기후가 따뜻하여 관광하기 좋습니다.

바다 밑에 있던 돌들이 지각 변동으로 솟아 올라 날카로운 돌기둥의 숲이 된 '윈난스린(석림)', 지역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재래시장 '상그릴라', 보이차의 산지인 '푸얼'까지 운남성은 전 지역이 명승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절경은 리장의 서쪽에 위치한 '옥룡설산'입니다. 높이 5천596미터, 1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있는 이 곳은 히말라야 산맥과 이어집니다. 정상에 쌓인 만년설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은빛 용이 누워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옥룡설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사의 속 뜻을 파악해야 센스 만점 유능한 후배”



위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회사생활은 녹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사원은 팀장의 질문에 전부 대답했다. 그렇다, 대답만 했다! 팀원이 얼마나 바쁜지 리더가 모를 리 없다. 평소 안 쓰던 이모티콘까지 써가며 오늘 저녁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팀장의 마음에 근거 있는 생채기가 났음은 물론이다.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여자(또는 남자)라는 생물을 알아야 하듯 직장 상사와 잘 지내고 싶다면 상사의 말 속에 숨겨진 속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표현방법과 사고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나보다 회사를 오래 다닌 선배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보편성에서 발생되는 표현방식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왜 상사의 말이 다채롭게 해석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처한 상황과 맡은 바 직책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오롯이, 그리고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상사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이나 제언을 할 때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기 위해 가능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는 당신의 직장생활에 또 하나의 ‘꿀팁’을 선사하고자 한다. 단, 보편적인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케바케와 사바사

1) “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의 줄임 말로,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다.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례별로’라는 뜻으로 원칙 없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사바사’라는 말은 ‘사람 바이 사람’ 즉,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다. 상사 말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상사의 상황과 특성을 잘 캐치해내는 것이다.

완곡어법 대신 ‘좋다, 싫다’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상사가 있는 반면 자신의 모든 의견을 맛 칼럼니스트처럼 포장하는 상사도 존재한다.

단, 앞서 말한 보편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1)과 같은 상사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나 실적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질문에는 본심이 숨어 있다.

2)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 “그때 지시한 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상사의 질문에는 본심이 숨겨져 있다. 본래 질문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직장생활에서의 몇몇 질문은 자신의 본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2)의 질문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유하는 형태의 질문은 대개 ‘나의 의견을 따라 달라’는 종용(慫慂)의 의미를 갖는다.

3)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던 2)와 달리 보다 우회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물음이다. 이미 착수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알려달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중간 보고’를 해달라는 뜻이다. 상사가 3)의 질문을 수차례 하게 만드는 것은 큰 실례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안 제시가 없는 말은 거절의 표시다.

4)“그 제안서는 검토 끝났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올바른 내용 파악이 가능하듯 상사 말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상사는 후배 직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에둘러 표현하는 화법을 선호한다. 제안서가 꽤 괜찮았다면, ‘검토가 끝났다’는 말 뒤에 일의 진행을 위한 첨언이 붙거나 향후 계획을 묻는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추가 설명 없이 검토가 끝났다는 말은 제안서의 생명도 끝났다는 뜻이니 쿨하게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사의 답변에 “역시 통과될 줄 알았어! 내 제안서는 완벽하거든!”이라고 생각해 본인 혼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시간들”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11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 현대중공업에서 준공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2007.11

2007년 11월 현대중공업 사보는 ‘더불어 사는 재미’를 주제로 한 특집을 준비했다. 먼저 직장 생활의 성공 여부는 인간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로 신뢰를 쌓고, 칭찬과 감사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칼럼이 소개됐다. 또 입사 동기, 업무 파트너 등 우정을 나누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낀 사우들의 이야기도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쳤다. 공공인프라 및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학교와 병원 등을 지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 독거 노인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알뜰 바자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을 열기도 했다.
이달 사보에는 1998년 5월에 준공한 대산복합화력발전소의 방문기가 실렸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당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現 현대일렉트릭)의 소속으로 36명의 사우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산발전소는 가스터빈을 운전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때 나오는 뜨거운 가스로 물을 데워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비상용 전력을 공급했다. 발전소는 준공 이후 한때 적자를 기록했지만, 현대의 기술력과 설비·장치의 개선 효과로 가동 효율을 크게 높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현대미포조선의 ‘금장’ 포장증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울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금장’ 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현대미포조선이 같은 해 10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맺는 등 그동안 정기적인 단체헌혈 행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범국민적인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현대미포조선은 매년 2회 이상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해마다 평균 3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 현대삼호중공업에 앰뷸런스를 기증한 노르웨이 엡센사와 기념사진

이달 9일, 15만 9천톤급 원유운반선의 명명식에서 선주사인 노르웨이의 엡센 사는 현대삼호중공업에 앰뷸런스 한 대를 기증했다. 이 앰뷸런스는 그랜드 스타랙스 리무진급으로 심실제세동기, 심전도, 쇼크방지용 하의, 휴대용 산소 소생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장착했다. 차량 및 의료장비의 가격은 총 8천 3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스 피터 엡센 회장은 명명식에서 “고품질 선박건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앰뷸런스를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1997.11

1997년 11월 사보에는 입하라인, 생산라인, 포장라인, 자동창고, 출하까지 전 공정의 제어 및 소프트웨어를 턴키 베이스로 수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자동화시스템부문이 소개됐다. 이 부문에는 자동화시스템영업부, 시스템제어기술부, 시스템공사기술부가 포함돼 있었는데, 총 120여명의 사우들이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산업의 밑그림이 되는 ‘자동화’ 사업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영업부에서는 한국합섬, 코오롱 등 섬유업계 물류시스템 설비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포터 및 트럭생산을 위한 의장, 차체 조립 컨베이어 라인 그리고 항만 및 공항의 SOC 사업의 종합물류시스템 등 미래지향의 신사업부터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제철 자동화 설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업들을 수주했다.

▲ 자동차 생산라인에 적용한 오버헤드 컨베이어 장치

1987.11

1997년 11월에는 현대미포조선이 프랑스 포라머사로부터 선박 건조비용을 상회하는 초대형 특수 개조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기존 잠수함운반선의 MIDBODY에 선수 및 선미 부분을 제작, 석유시추선으로 완성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이 약 7천만달러에 달했다. 이 선박은 18개월간의 개조공사를 거쳐 서아프리카 앙골라의 지라솔(GIRASSOL) 유전에 투입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은 새로운 개조공사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경험을 획득하게 됐다.
1987년 11월 현대중공업은 제2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 5개, 은 1개, 동 5개, 장려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참가 기업체 중 종합성적 1위로, 86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보에는 이들 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능인이 된 동기,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고의 기능인’, ‘명장’이 되어, 국가와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11월호

1977.11

1977년 11월 현대중공업 사보는 매주 화요일마다 꽃꽂이 강좌를 실시하며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화꽃꽂이회 서클을 소개했다. 이들은 1977년 5월에 발족했는데, 회사 명명식과 사우들의 합동 결혼식 때 명명판을 비롯, 신랑 신부의 코사지, 꽃다발 등을 정성으로 만들며 아름다운 선행에 앞장섰다.
이어서 대졸신입사원 입사식이 실렸다. 총 146명의 신입사원들은 현대 가족의 일원으로,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심현영 전무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자신과 회사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11월호

“갑작스런 재난, 생존전략 미리 짜두자!”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재난 대비용품의 주문이 폭증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이 직접 꾸린 생존배낭을 찍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북핵(北核) 위기 등으로 국내외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비상상황을 대비해 자구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재난, 평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 ☐ 지도
- ☐ 핫팩
- ☐ 구급약
- ☐ 라디오
- ☐ 생수
- ☐ 랜턴
- ☐ 양초
- ☐ 라이터
- ☐ 담요
- ☐ 배낭
- ☐ 신분증
- ☐ 통조림
- ☐ 다용도 칼
- ☐ 호루라기
- ☐ 다용도 끈
- ☐ 지퍼백
- ☐ 고체연료
- ☐ 라면

01 비상식량과 식수를 준비한다.

재난 발생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수와 열량이 높은 비상식량이다. ‘비상식량’ 하면 흔히 라면을 떠올리지만, 취사하기도 어렵고 유통기한도 짧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초콜릿과 에너지바, 각종 통조림, 포도당 사탕, 국수, 전지분유 등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긴 제품이 적합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소 3일동안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15일~30일분의 식량을 집안에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상 핵 폭발이 일어나면 2주는 지나야 활동이 가능한데, 비상물품을 이 기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인 1명이 하루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인당 28리터 정도의 물을 집안에 구비해 두면 된다.

02 의약품 상자를 준비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다양한 부상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병이 있다면 처방전과 상비약도 준비해보자. 시중에 판매하는 구급약품 세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비상약품 준비물: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外

03 생존물품을 구비해 놓는다.

물과 비상식량 외에도 휴대전화 배터리, 라디오, 손전등, 호루라기, 면장갑, 라이터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생존물품이다. 또 비상의류와 물티슈, 화장지, 얇은 담요, 우의, 현금, 귀중품, 안전모 등도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다.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하고, 행동요령이나 지도도 프린트 해놓으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집안에 재난가방을 준비해두면 비상시에 손쉽게 찾아 쓸 수 있다.

04 가족들과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운다.

재난 시에 어디로 피할 것인지 가족들과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태풍, 지진, 공습, 핵폭발, 화학무기 공격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과 유의사항이 다르다. 지진이 나면 밖으로 피하고, 핵무기 공격에는 지하로, 화학전이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 등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느 곳에서 만날지 1차, 2차 등으로 나눠 미리 장소를 정해두거나 연락 방법을 결정해두자. 더불어 대피소에 대해 미리 정보를 숙지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더 많은 재난대비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재난가방 꾸리기

재난상황을 대비해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재난가방을 준비해보자. 재난가방은 비상대피 시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비상용품들을 튼튼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에 담아놓은 것이다. 재난가방은 집에서 나갈 때 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재난가방을 직접 구매하거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과 내용물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물품을 직접 하나씩 사서 모으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재난 가방을 준비할 수 있다.

※ **내용물** : 비상식량, 물, 응급약품, 손전등, 호루라기, 라디오, 건전지, 휴대전화 배터리, 라이터(또는 파이어 스틱), 비상용 의류, 물티슈, 안경, 우의, 얇은 담요 (또는 구조 담요), 현금, 신용카드, 면장갑, 안전모, 멀티툴(맥가이버칼), 나침반, 압축수건, 귀중품 外

사계절 내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키즈카페 '노리파크'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10 현대예술관 스포츠동 1층
시간 매일 오전 10시~저녁 8시
요금 어린이 1시간 4천원, 2시간 7천원
(추가 30분당 2천원) / 보호자 1인 시간 무제한
입장료 2천원, 음료 무료 제공
문의 052-209-7997

지난 9월 26일 현대예술관 스포츠동 1층에 부모에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이자 아이들에겐 맘껏 뛰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인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다. 280제곱미터 규모에 최대 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8개의 놀이존과 파티룸 등 부대 공간을 갖춰놓았다.

노리파크 내 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방방 뛰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맘껏 발산시킬 수 있는 트램펄린(Trampoline)이 널찍이 위치해 있다. 안전을 위해 연령에 따라 3구획으로 나눠져 있어 큰 애들 틈에 작은 아이들이 덩달아 뛰어 오르다 구를 염려가 없다. 유아들 이용이 적은 오전 시간대엔 영아들에게 모두 오픈돼 여유 있게 트램펄린을 사용할 수 있다.

편백놀이존은 아이 손톱 크기만한 크기의 친환경적인 편백나무 조각이 한 가득 깔려있어 모래를 대신해 삽으로 뜨고 담을 수 있다. 옷이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액션존에서는 빔프로젝트가 움직이는 그림을 쏘는데, 아이들은 이를 잡으려고 분주히 쫓아 다닌다. 2미터 높이의 약간 경사가 있는 암벽 등반장은 유아들이 오르기에도 큰 힘이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레이싱존에선 어릴 때 골목을 휘저으며 맛 보았던 바퀴 달린 말의 스릴을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자동차 모양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 미니 영화관인 무비존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다. 한마음회관 작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50편 이상의 DVD를 활용해 다양한 영화를 폭넓게 상영하고 있다.

노리파크의 한가운데 마련된 주방&마켓놀이존은 또래 친구들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다. 함께 소꿉놀이, 슈퍼마켓 역할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상황별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게 된다. 정글짐에서는 회전 뱅뱅이,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타며 맘껏 뛰어 다니며 술래잡기를 한다.

노리파크는 돌출된 부분이나 나무문에 스펀지를 덧대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아울러 수유실이 마련돼 있어 영아를 동반한 부모도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위와 추위는 물론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우리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추천할만하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명장의 지도 아래, 기술인력 양성의 '산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명장공방 지원 사업에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현대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됐다. 40년 경력 명장의 고급기술을 전수받아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연결한 것이 재선정의 비결이었다. 열기 가득한 수업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대공고의 명장공방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총 12명이다. 모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명장의 기술을 전수받는 기회를 잡은 만큼, 두 눈을 반짝거리며 수업에 몰두한다. 전수받는 기술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배관 분야다. 몸 안의 혈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활동이 멈추는 것처럼, 기계장치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배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실습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 앞에 수업 시간을 칼같이 맞춘 이동섭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출신의 퇴직 사우로, 배관,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가공 분야에서 기능장을 취득한 명장이다.

모두 처음에는 '초보'다. 하지만 기술을 갈고 닦아 '명장'이 된다. 배관 도면을 익히는 첫 수업, 학생들의 이해도는 초보치고는 뛰어났다. 종이에 그려진 도면의 이해는 물론이고, 현장의 배관 설비에서 두드러진 감각을 보여 명장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다.

용접 실습 전, 학생들이 비장하게 안전 의식이 담긴 안전구호를 외친다. 이들의 함성 소리가 실습장 곳곳에 퍼지고 나면, 파이프 용접 수업이 수업된다. 용접봉을 다루는 손놀림이 조심스럽다. 미묘한 각도 차이에 용접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쇠를 녹이는 듯하다.

조창훈 학생(조선해양설비과 2학년)은 "최고기술을 보유한 명장 선생님께 직접 현장의 노하우와 기술전수를 받아서 정말 좋다"며, "배관 직종에 취업해서 훗날 꼭 명장이 되고 싶다"고 다부지게 포부를 드러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수업이 끝날세라 실습에 집중한다.

학생들이 더 크고 높은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도 교사들은 "더 많은 기업에서 현대공고에서 배출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차세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명장이 직접 기술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인성과 태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대공고. 그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오늘도 신나게 달려 봅시다”

대학교 때도, 회사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해본 적 없고,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걱정 반, 설렘 반인 당신이라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땀 흘리며 사람들과 친해지는 동호회 ‘Ulsan Running Crew(이하 URC)’을 주목해보자.

‘파이팅’ 외치며 러닝 스타트

URC는 러닝을 통해 개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울산 지역의 바람직한 러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창설됐다.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160여명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태화강 대공원, 울산대공원 등 울산의 명소에서 정기러닝을 실시하고 있다.

URC는 정기러닝 시 개인의 러닝 경험 및 체력에 따라 6개의 그룹을 나눠, 달리는 속도와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장에서 다같이 스트레칭을 한 후, 그룹별로 지정된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러닝을 시작하면, 회원들이 작은 가방에 챙겨온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와 흥을 돋운다.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얼굴에 한껏 달아오른 열기가 가득하다.

러닝이 마치면 물과 바나나를 나눠 먹으며, 오늘의 러닝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다. 모든 그룹이 러닝을 종료하면 다시 몸풀기 스트레칭을 하고, 당일 처음으로 활동을 한 회원을 소개한다. 이어서 앞으로의 행사 소식을 전달하고 다같이 단체사진을 찍으면, 정기행사가 마무리된다.

열심히 활동해야 ‘정회원’ 자격 부여

범울산 젊은 러너들의 모임인 URC는 NAVER CAFE로 운영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URC 카페는 오픈형이 아니라 초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URC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에 한해 초대가 이뤄지고 있다.

또, 150~160여명 정도를 적정 인원으로 보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만 그 잔여 인원만큼 새롭게 충원한다고 한다.

아울러 새로 가입한 인원은 게스트라 부르고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 러닝 7회 이상 참석, 누적 러닝거리 50킬로미터를 달성해야 해 URC는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URC 정회원이 되면 헤어밴드, 손목아대, 스포츠 타월, 양말, 야광팔찌 등 기념품이 제공되며 URC를 상징하는 단체 기능성 티를 맞출 수 있다. 또,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레포츠 모임이나 단체 야유회 등에도 참가할 수 있어 회원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다.

울산 러닝계의 다크호스로 부상

URC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대리(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로 ‘2016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을 꼽는다. 당시 울산광역시 육상연맹의 정식적인 초대를 받아 URC에서도 각 종목별로 선수를 선발하여 대회에 참여했는데, 울산육상연맹에 소속 선수들이 모두 합심한 결과, ‘전국체전 종합 1위’라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URC는 지난해 열린 울산 중구청장배 육상대회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울산 러닝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에 초대되어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 하프마라톤, 부산 아디다스 마이런, 서울 동아 마라톤, 대마도 국제 마라톤 등에 참가했고, 울산 3.1 마라톤 10킬로미터 분야에서는 여자부 4위와 5위를, 경주 동아 마라톤 10킬로미터 분야에서는 여자부 4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선각기술부 이동국 사원은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는 편인데, 지인 소개로 URC를 알게 되어 작년부터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며,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릇 즉, 기량만큼 체계적으로 그룹을 나눠 삼삼오오 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성취감이 들어 뿌듯하다”며,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선의의 욕심이 나, 매주 활동이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물놀이, 스키 등 사계절 함께 하는 청춘

URC는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선선한 봄에는 1박 2일 또는 당일로 봄소풍을 가고, 무더운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로 물놀이를 떠난다. 가을에는 자체 운동회를 실시,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러 가는 등 사계절을 함께 하며 팀워크를 기른다.

운동을 좋아하는 청춘들이 한자리에 있는 만큼 러닝뿐만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레포츠를 서로에게 알려주며,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URC는 내년에도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회원들의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경상권 러닝 크루와만 교류하고 있지만, 젊은 크루들이 많이 있는 서울권과도 자주 접촉해 전국적인 러너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

같은 취미를 가진 청춘들이 모여 열정을 발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멋지다는 감탄이 나온다. “왜 이제서야 URC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아쉬움 가득한 회원의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URC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사우들이 속출할지도 모르겠다.

가입 문의 신정훈 대리(URC 회장/010-5303-6279)

열정 가득한 URC 회원들의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보세요!

푸짐한 인심 한 그릇, 기분 좋은 '착한 식당'

남편 월급이랑 애들 성적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는 푸념 섞인 우스갯소리가 씁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말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만큼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듯 착한 가격으로 올바른 음식을 대접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자치부와 지역 시, 군에서 지정한 업소로 평균 미만 가격(60점), 위생 청결 상태(30점), 친절도 및 서비스(5점), 옥외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의 공공성(5점)을 기준으로 총합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골장의 정겨움에 편리함이 더해진 호계시장 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동산분식'은 이 자리에서 벌써 17년째 운영중인 터줏대감이다. 칼국수 3천원, 김밥 1줄에 1천300원이라고 매겨진 저렴한 가격표가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또, 지역방송으로도 이미 방영되어 소문난 장터맛집 '태양추어탕'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 직접 담근 집된장으로 만든 열무보리밥과 뜨끈하게 정성껏 끓여낸 추어탕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엄마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듯한 칼국수와 수제비가 인기인 '남향손칼국수'에서는 기본 찬으로 내어주시는 깍두기와 함께 집밥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그 푸짐한 맛이 겨우 3천500원, 4천원이라니 괜스레 죄송스럽다.

여기 착한가격업소의 벽에 붙은 '착한 가격 실천 결의문'에는 언제나 기분 좋은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여 재료를 속이지 않으며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런 진심을 담아 만드는 음식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니 놀랍고도 반갑다.

혹시라도 싼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푸짐한 인심까지 넉넉하게 한 그릇 가득 담아주는 사람 냄새나는 착한 가게. 이렇게 천 원짜리 몇 장만으로도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가게. 그래서일까? 바로 엊그제 다녀왔는데 그 정겹고 따뜻한 맛이 벌써부터 그립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호계시장 : 울산 북구 호계3길 17-11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서민들 따뜻한 위로

마음이 게을러질 땐 시장엘 간다. 탁 트인 공간에서 하루를 꽉 채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공되지 않은 일차적인 자연의 산물이 전하는 신선한 에너지는 새로운 활력을 더해준다.

현대백화점 동구점 옆 광장 인근에 위치한 명덕시장은 가격 착한 맛집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30여년 전 시장이 처음 형성됐을 땐 다른 시장처럼 여러 가지 구색을 갖췄지만 회사에 가까운 곳인 만큼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이 즐겨찾기 시작하면서 국밥과 칼국수 하면 동구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명소가 됐다.

시장 둘레와 입구에 위치한 슈퍼마켓과 청과물점, 횟집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시장 한복판은 국밥집이 주를 이룬다. 식당마다 크기도 비슷하고 고기나 채소 등 주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손맛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뿐 맛도 얼추 비슷하며 메뉴도 대동소이하다.

고기가 푸짐히 담긴 국밥 한 그릇이 5천 원, 여기에 에피타이저로 순대 한 접시가 무료로 제공되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까지 넉넉히 마실 수 있다. 풀 코스로 차려지는 양 많고 맛있는 음식이 저렴하기까지 해서 한번 온 사람은 단골로 고정될 때가 많다.

돼지뼈를 사용한 사골 국물은 6시간 이상 계속 고아내는데, 진하게 우러난 국물은 소금간만 치면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국이다.

칼국수 역시 기본이 남성분들 양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곱배기를 주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양이 좋다. 지난 십여 년간 한 줄에 천원 했던 김밥은 올해 들어서야 500원이 올라 1천500원을 받고 있다. 김밥은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말아 숭숭 썰어 내는 만큼 눅진함이 없이 식감이 살아 있다.

시장 안쪽에 위치한 횟집에선 1만5천원 싱싱한 회무침 한 팩이면 성인 세 명이 너끈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양을 자랑한다. 맛 또한 주인 아주머니의 오랜 경력만큼 절로 믿음이 간다.

지금은 시설 좋은 식당들이 주변에 하나, 둘 들어서고 입맛도 서구화되고 다양해져 예전만큼 손님이 많진 않지만 그 옛날 아버지 손을 잡고 찾았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혹은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오는 대를 잇는 단골들을 볼 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람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한 해에 한번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여나가는 이 때, 오래 기간 변함없이 서민들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편안한 위로가 되어 준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명덕시장 : 울산 동구 명덕로 21

꿈 많은 우리 아이에게 '직업 체험' 선물하세요~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묻자, "과학자, 의사, 공무원…" 답이 쏟아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여건상 직업 체험의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면 곡성에서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미리 그려보자.

아이 눈높이에 맞춘 진로 탐색에 경제 교육까지!

지난 4월에 개관한 곡성 드림하이센터는 호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어린이 직업 체험관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연면적 1천874제곱미터, 2층 규모의 한옥 건물로 총 8가지 테마의 29개의 직업을 138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1층은 안내 데스크와 적성검사실을 비롯해 금융전문가·여행설계사·기관사·경찰 등 10개의 직업 프로그램을, 2층은 아나운서·작곡가·헤어디자이너·웹툰 작가 등 17개의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에 입장하면 먼저 입구에서 간단한 적성 검사를 받는데 결과에 따라 알맞은 테마를 결정하거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부모가 코스를 추천하고 체험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적성 검사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테마에 따라 각 부스는 실제 직업 현장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고, 소품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직업과 관련된 의상을 입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체험을 한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진찰을 하고 때로는 역할을 바꿔 환자가 되어본다. 소방관이 된 아이는 호스를 이용해 불을 끄고 인공호흡을 배워본다. 바퀴를 떼었다, 붙였다 하며 자동차 정비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읽으며 방송 제작도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체험관은 가상 화폐 '레일'을 도입해 아이들이 경제적 개념을 배우는데 톡톡히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 받은 급여로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경제 교육을 받는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체험인 셈이다.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하는 동안 부모들은 체험관 대기실에 마련된 모니터를 보며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소방, 법원, 헤어디자이너, 엔터테이너, 건축설계사 수업에 동반 입장해 체험에 참여해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즐거우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자.

취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전남 곡성 직업체험관
주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29-1 드림하이센터
오전권 10:00~14:00 (소인 1만6천원, 대인 8천원)
오후권 14:30~18:30 (소인 1만6천원, 대인 8천원)
종일권 10:00~18:00 (소인 2만5천원, 대인 1만원)
※ 티켓팅은 시작 20분 전부터 가능
문의 1877-6300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곡성을 제대로 즐기자!

직업 체험관에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훌륭한 가족 나들이 코스가 이어진다.

·증기기관차

옛 곡성역 승강장에서 출발해 가정역까지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면 눈앞에 손꼽히는 비경이 펼쳐진다.

예전 그대로의 철길과 승강장을 사용하고 있어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과거로의 여행을 선사한다.

☎ 문의 : 061-636-6174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가 밋밋하다면 레일바이크를 타도 좋다.

약 30분동안 증기기관차와 같은 운행구간을 달리며, 섬진강의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다.

☎ 문의 : 061-362-7717

·짚풀공예 & 전시장

짚풀공예 교육 전수관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5호 초고장(짚풀공예 장인)이 손수 엮은 작품이 전시돼 있다.

동화책에서 보았을 것만 같은 다양한 짚풀 공예품을 만날 수 있고, 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 문의 : 061-362-7461

·곡성 요술랜드(역사체험전시관)

곡성에는 조선 태종시대 장군이었던 '마천목'과 관련한 도깨비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이곳은 도깨비를 소재로 한 인형극과 도깨비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 문의 : 061-363-9900

400년 된 자연 숲에서의 '힐링'

2004년 산림청으로부터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이 곳은 유원지나 관광지가 아닌 한 집안에서 긴 세월 동안 땀 흘리며 가꾸어 온 숲이다.
남평 문씨 집안에서 400여년 가까이 9대에 걸쳐 관리해온 사유림으로, 작년 봄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찾아가는 길

기장 철마 웅천리 미동마을 간판 앞에서도 아홉산숲은 찾기 어려웠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구 간판에도 숲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숲은 미동마을 간판에서 다리를 건너 산 쪽으로 쳐다보면 산 밑에 미동암소정 식당 간판이 보인다. 그 뒤가 아홉산숲이다.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넓은 주차장이 1주차장이고 매표소 입구 밑에 2주차장도 있으나 작아서 복잡하다. 산 위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매표소 화장실을 미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숲을 지키기 위해 꼭 방문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입장료 1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홉산숲이 영화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곳까지 와서도 다소 비싼 입장료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안타까운 마음에 입장료를 5천원으로 낮추었다고 한다. 생명의 근원인 살아있는 생태 공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 마음이었다.

아홉산숲은 주변에 아홉 개의 산과 계곡이 있어 이름 붙여졌다. 아홉산 자락에 위치한 숲으로, 총 면적 52만제곱미터에 이르는 천연림에 수령이 100~300년 된 금강송, 대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은행나무 등이 빼곡하다. 116그루의 나무는 기장군청에서 지정한 보호수이기도 하다.

숲을 둘러보는 시간은 얘기를 나누며 느릿느릿 걸어도 두 시간이다. 험한 길이 아니라서 가족 동반 산책객이 많다. 키 작은 야생화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뿌리를 드러낸 채 수백 년 산을 지켜온 층층나무와 시선을 맞추며 평평한 길을 거닐어본다.

아홉산숲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480번지
개장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월요일 휴무
문의 051-721-9183 (입장료 5천원)

숲과 나누는 대화

금강송 숲을 지나면 '맹종죽 숲'이 기다린다. 어디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굵고 큰 대나무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휴식을 준다. 커다란 솔처럼 생긴 대나무 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맹종죽 숲 가운데는 산신령의 영험이 있다고 믿어,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치성을 드리거나 모임을 갖는 광장으로 삼기 위해 비워두었다고 한다. 그 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군도, 대호, 달의 여인, 협녀 칼의 기억, 옥중화 등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바람의 길'은 맹종죽과 개잎갈나무가 양쪽에 마주하고 있어 아홉산숲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라 한다. 서낭당 앞을 지나 편백나무 길 입구에 들어서면 코가 먼저 눈치를 챈다. 길게 늘어선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다. 잠시 명상을 하거나 바람의 소리, 새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보는 게 좋다. 마음을 비우고 터벅터벅 흙을 밟아 봐도 좋겠다.

좀 더 가면 대나무 끝이 하늘에 닿아있는 '평지대밭 맹종죽숲길'가 나온다. 약 만평 규모의 평지대밭은 너무나 아름다워 가보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이곳 맹종죽에는 오래 전부터 식당 잔반과 분뇨를 줬는데, 건강한 맹종죽은 뿌리가 강해 온 산에 번질 수 있어 보호수로 지정된 금강송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중이라 한다. 맹종죽은 가슴 높이의 지름이 최고 20센티미터, 키도 10~20미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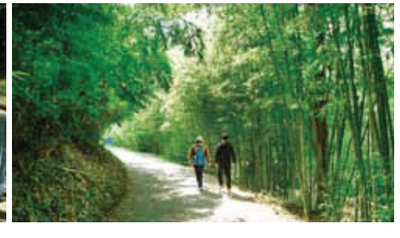
산을 내려오면 60여년이나 된 한옥 '관미헌(觀薇軒)'이 쉬어가라 손짓한다. 산주 일가의 종택으로 '고사리조차 귀하게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못을 전혀 쓰지 않고 순전히 뒷산의 나무로만 지었는데, 재래식 부엌으로 나무 아궁이에 불을 때 지금도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

앞마당에는 수령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 배롱나무 그리고 희귀한 구갑죽이 머리를 땋아 내린 듯한 형상으로 서 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의 테가 반복되며 곧게 위로 자라는데 구갑죽은 마디 테가 비스듬하게 서로 붙어 거북이등과 흡사한 모양을 보인다. 한자로 거북이 구(龜), 껍질 갑(甲), 대나무 죽(竹)자를 써서 구갑죽(龜甲竹)이라 한다.

부산 연제에서 친구의 소개로 왔다는 허윤숙씨는 "편백나무 숲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꼈다"며, "조용한 숲에서 산채밥으로 점심도 먹고 힐링 하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미헌 마당을 서성인다. 바람 부는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햇살에 반짝이는 잎들을 본다. 누군가는 가고 또 누군가는 온다. 사립문을 밀고 들어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곳을 찾아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며 사립문을 나서본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길'이 우리를 부른다

태화강 100리길 자전거도로·산책로
(범서읍 선바위~언양읍 남천교, 13km)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신발 끈 질끈 매고 태화강 줄기 따라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본다.

2009년 1월 태화강 젖줄을 따라 자전거 100리길(북구 명촌교~울주군 석남사)을 만들기 시작한 울산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선바위 망성교에서 시작해 언양 반천교까지 13킬로미터 구간이 임시 개통돼 울산의 라이더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태화강 하천을 따라 걷다 보면 망성교로 연결된 농로 따라 시원하게 탁 트인 자전거도로와 함께 산책로를 만나볼 수 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황금들판과 울긋불긋 단풍이 수를 놓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태화강의 상류가 산천초목과 함께 유유자적 흐른다.

시시각각 하늘의 구름이 변화무쌍하게 변할 때, 자연이 내뿜는 신선함을 들이키며 천천히 걸어본다. 이내 속이 개운하고 기분이 맑아져 웃음 한 자락 바람결에 날려 하늘 캔버스에 한 점을 더해본다.

선바위 농로 옆 자전거길 옆에서 마주친 태화강 줄기는 오염되지 않은 정글 숲 같다. 혼자 힘껏 웃음을 내질러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한적한 산책로에 감나무, 사과나무가 다롱거린다. 갈대랑 억새는 은빛 푸레질을 하고, 경계 없이 강물에 날개짓을 퍼덕이며 청둥오리와 학이 날아오른다.

다리가 욱신거릴 때쯤 공룡발자국을 품고 있는 쉼터가 나온다. 쉼터는 하늘을 이불 삼아 눕고 싶어질 만큼 안락하다. 자전거도로로 씽씽 달리는 라이더들이 달려온 거리를 짐작할 만큼 시큼한 땀 냄새를 풍긴다. 한 라이더는 "태화강에서 석남사까지 갑니다. 자전거 도로요? 좋지요! 포장이 잘돼 있어 달리기 좋아요"라며 큰소리로 이야기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던가. 선바위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어느새 KTX 울산역을 지나 언양 남천교에 다다른다. 언양 초입부터 풍겨 나오는 언양 알프스시장의 참깨 볶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남천교 하천엔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돼 있어 걷는 이와 타는 이 모두 즐겁다.

약 13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가을을 보내기 못내 아쉬운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길 위에서 오롯하게 태양을 한 몸에 받으며 자연과 교감하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길 바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책'의 숲을 거닐다

'독서의 달' 가을의 시작과 함께 지난 9월, 울산 북구 매곡동에 매곡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이루어져있는 이곳은 약 2만여권의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건축대상3관왕을 수상한 건물답게 세련된 외관이 멋스러운 매곡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위치하고 있다. 일반 도서관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구조로 책장이 양쪽으로 진열되어 있고 그 중앙에 좌석을 자유롭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좌식 형태의 영유아실이 따로 마련돼 있고, 휴게실에서 이어지는 도서관 앞마당에는 노천카페 느낌의 파라솔과 그네 벤치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편, 2층 종합자료실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과 정기 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쪽에 자리잡은 '청소년 진로탐색 자료실'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한 도서와 관련 자료들을 모아둬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3층에는 개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각종 시험 준비를 하는 고시족들을 위한 열람실과 다목적실 등이, 지하에는 시청각실이 갖추어져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디지털 자료 검색 및 영화 감상 등이 가능하다.

특히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기'가 인상적인데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다. 24시간 운영하는 이 기기는 북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대출을 예약한 후, 자판기처럼 원하는 도서를 빌려갈 수도 있고, 반납도 간편하게 바로 처리되니 참 유용해 보인다. 매곡도서관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의미 있게 보내보자.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매곡도서관 운영 시간 및 이용 방법

	화~금	토~일
어린이자료실(1층)	09:00~20:00	09:00~18:00
종합자료실(2층)	09:00~20:00	09:00~18:00
열람실(3층)	08:30~22:00	08:3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
문의 ☎ 052)241-7470, **홈페이지** http://usbl.bukgu.ulsan.kr/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부산 용두산 공원 주차장 옆에 전국 최초 영화 체험 박물관이 생겼다.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392억 원이 투입돼 건립된 박물관에서는 영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작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영화의 도시로 떠나는 여행

지하는 주차장과 수장고(收藏庫)다. 지상 1층은 210석의 영상홀, 강의실, 사무공간이 있고, 지상 2층은 기획전시실, 매표소, 카페테리아, 편의점, 영화에 나왔던 미니어처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형 파규어가 시선을 사로잡고, 영화에서 만난 미니어처를 찾아보는 것이 즐겁다.

세월은 흘러도 영화는 남듯 그때 그 모습의 파규어가 반갑다. 상설전시관 3층에는 영화의 도시부터 영화 역사의 거리, 명작의 광장, 영화공작소 등이 있고, 4층에는 영화 축제 현장에서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지하에 주차를 하고 2층 매표소로 향한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으면 한 장의 초대장(코어필름)을 준다. 영화의 도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2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얼굴 인식을 꼭 체크해야 한다.

영화 체험 박물관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빛을 잃어가는 영화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 도시 곳곳을 누비며 끊어진 코어필름을 완성하도록 설계돼 있어 초대장을 잃어버리면 영화의 도시를 즐길 수 없다.

기차역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들어보자. 기차는 송정역을 지나 해운대를 거쳐 중앙역 3-2플랫폼을 거쳐 영화박물관 앞에 내려 준다. 영화역사 거리를 거닐며 영화의 전성시대와 영화 역사 터널을 만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시대별, 장르별로 상영되었던 영화를 소개하는데 1923년 제작된 한국 영화사상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도 만나볼 수 있다.

영상홀에는 1948년 제작된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소개하는 변사(辯士/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시대가 흘러 명작의 광장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영화 OST를 듣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영화학교에서는 부산 출신으로 영화 ‘히말라야’, ‘공조’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윤제균 감독의 숨결을 찾아가는 거장의 연구실, 영화철학, 제작현장25시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제작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3, 4층 상설 전시관에서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된다.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촬영장이다. 타임 슬라이스는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순간적으로 동시 촬영해, 피사체의 정지된 동작을 움직이는 것처럼 찍는 영상 기법이다.

이 곳에서는 영화 ‘매트릭스’의 공중부양 장면처럼 공중에 떠 있는 영상을 직접 찍어볼 수 있어 관람객의 관심이 높다.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온 숫자에 맞춰 점프를 하면 그 순간 모습을 카메라 16대가 동시에 찍어 합성하고 영상으로 바로 보여준다.

또, 화면 합성 특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크로마키(Chroma Key) 촬영장’도 마련돼 있다. 초록색 배경 위에서 주어진 화면을 보고, 상황에 맞는 연기를 펼치면 된다. 가면이나 머리띠, 장화 등의 소품을 활용하면 재미있는 촬영이 가능하다.

4층 전시관은 축제의 현장이다. 국내외 영화제, 핸드 프린팅관, VR 영상, 착시의 공간, 어린이들의 영화 공간, 플립북 만들기, 영화 미니어처 놀이터, 목소리 더빙하기, 영화의 고수 도전 등 18가지의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재미있는 초대장(코어필름) 코너는 관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체험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생생하고 신기한 가상현실(VR) 체험 영상실 ‘하이테크 시네마’도 관람객의 탄성을 불러 일으킨다. VR 안경을 끼고 ‘공룡이 살아 있다’ 영화를 보았는데, 공룡이 내 곁으로 다가오는 듯하고 긴 혀로 내 얼굴을 핥으려 할 때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코어필름 코너는 획득해보자. 두 시간 정도 웃고 즐기며 촬영을 마치면, 나만의 특별 영상이 초대장에 인식되어 차곡차곡 모아져 있다. 나만의 단편 영화는 4층 출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박물관이 제공하는 USB에 담아 개인 소장할 수 있는데, 유료 서비스다.

영화체험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난경 대리는 ”3층에 입장해서 박물관 영상 스토리를 꼭 들어 보세요. 코어필름 5개를 획득한다는 것을 숙지하고요. 미션을 성공하면 촬영에서 편집까지 나만의 영화 한편이 나옵니다”라고 관람 팁을 소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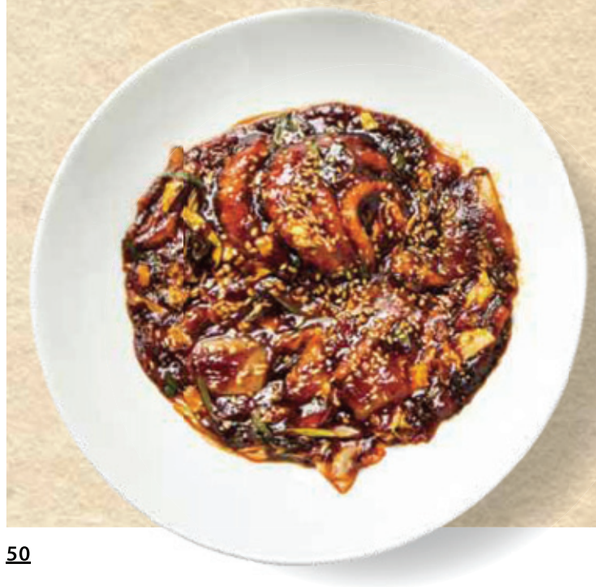
영화는 이제까지 눈으로만 봤다. 하지만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나도 영화의 주인공 혹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실제 영화 제작 과정을 몸과 마음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영화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다음에 영화를 볼 때면 소품 하나에도, 배우들의 동선 하나에도 오래도록 시선이 머물 것 같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주소 부산 중구 대청로 126번길 12
관람 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후 5시, 입장 및 발권 마감) ※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 1만원, 학생 7천원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051-715-4204

마무리 학습만큼 중요한 '식단'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운동 부족은 물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식단 관리를 통해서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똑똑한 수험생의 건강식단을 알아본다.



특별한 건강식이나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매 식사 때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다.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파워음료는 아예 끊거나 줄이고, 과식이나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다.

새롭게 시도하는 음식은 자제하도록 한다.

그간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음식물 알레르기나 구토, 설사, 소화장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당일 도시락으로 싸갈 음식은 지금부터 미리 먹어봐야 하고 적당한 양으로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반찬으로 요기가 될 만큼만 싸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락은 영양 분배가 중요하다.

밥 흰 쌀밥 보다는 현미 잡곡밥이 좋다.
현미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피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뇌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GABA는 뇌세포의 대사기능을 활발하게 해 정신 집중 및 기억력 증진을 도와준다. 찹쌀현미가 멥쌀현미보다 소화하기 쉽다.

고기 체력을 보강하겠다고 고단백, 고지방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고단백 보양식은 평소 가끔 먹으며 체력을 길러 주는 데는 좋지만 시험 바로 전날과 당일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시험당일은 소화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잘 먹던 친구들도 자칫 체할 수 있다. 갈비 등의 기름진 음식보다는 장조림과 같은 부드러운 고기나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의 소화가 쉬운 단백질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찬류 아몬드 멸치볶음, 잣 호두 죽,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가 포함된 반찬,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깻잎 반찬도 좋다.

과일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많아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피로 해소와 변비 예방에 좋다. 제철 과일과 평소 좋아하는 과일을 끼니의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도록 한다.

'대장' 관리도 필요하다.

- 저섬유식으로 대변량을 줄인다. 대변 양이 많을 경우 약간의 긴장감에도 장벽에 자극을 주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 지방의 섭취를 제한한다. 장에 염증이 생겨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기름기 많은 어육류, 전지분유를 자제하도록 한다.
- 가스를 만드는 음식을 피한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차 팽창하면 장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콩류, 양파, 달걀,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생선, 탄산음료 등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을 피한다.
-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한다.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능 당일 음식으로는 적합하기 않다. 체온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유당불내성이 있다면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도록 한다. 유당불내성이 있을 경우 유당이 분해되지 않고, 장 속에 남아 복통, 설사, 복부팽만감, 복부경련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우유, 치즈 유제품 등을 피하도록 한다.

'hi,hhi'에서 수능생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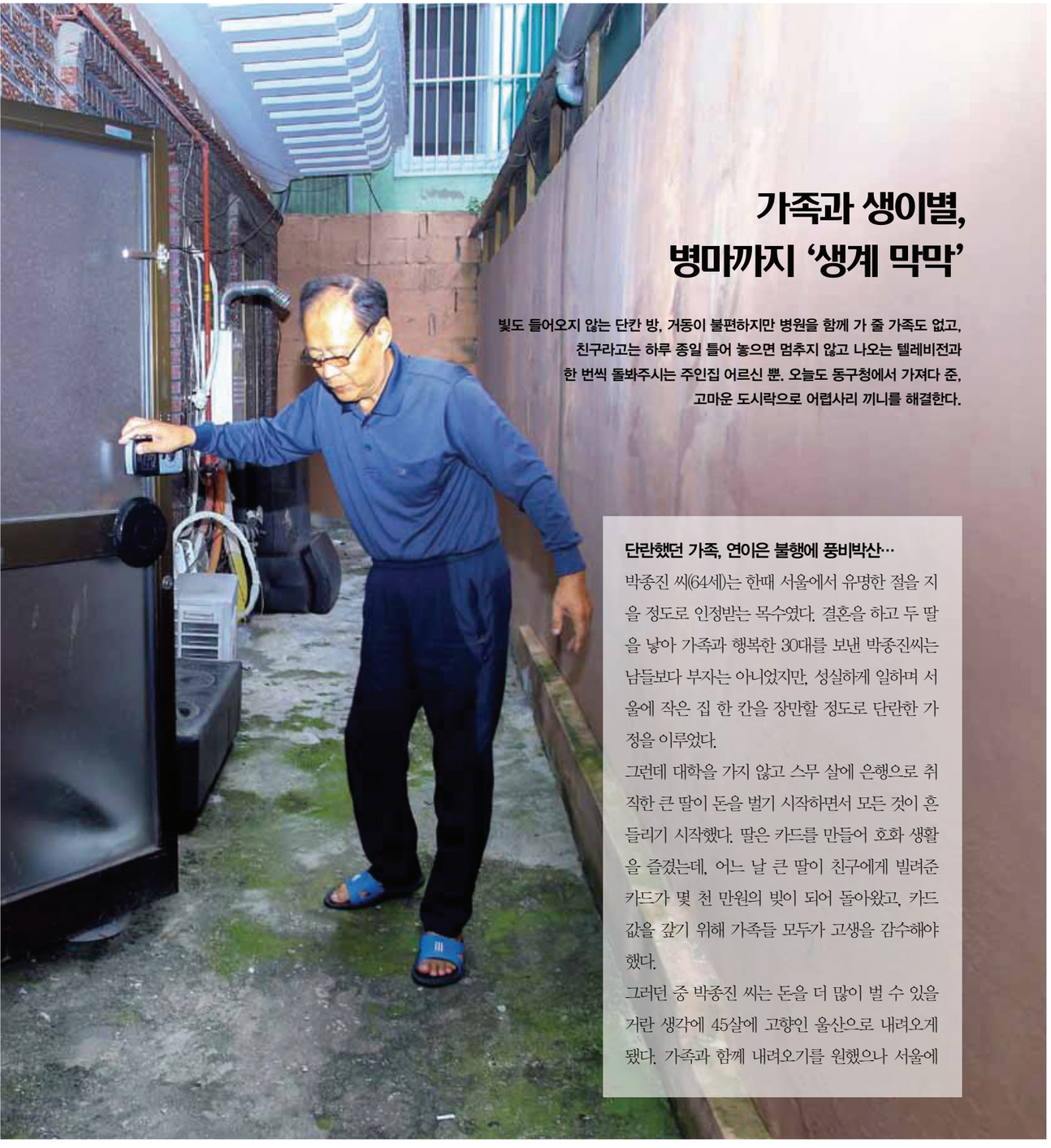
아침과 저녁,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운동법

온몸 두드리기

기혈 순환을 도와줘 기분이 상쾌해지고 뇌를 깨워준다.
①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뻗고
② 팔을 타고 어깨-가슴-배-옆구리-등과 허리-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꿈치-발등-다리 앞과 옆, 안-단전 순서로 두들겨준다.
③ 전신 두드리기가 끝나면 손으로 어깨에서 팔 끝, 다리 등 온몸을 쓸어준다.

발끝 부딪치기

긴장된 뇌와 몸을 이완시켜 숙면에 효과적이다.
① 편안하게 앉거나 눕는다.
② 몸 전체를 살랑살랑 움직여 몸을 편안하게 한 후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어 긴장을 풀어준다.
③ 발 뒤꿈치를 붙이고 엄지발 끝을 서로 부딪친다.
④ 10분 정도 반복한 뒤 동작을 멈추고 몸에 느껴지는 진동을 느낀다.
⑤ 아랫배 단전에 마음을 모으고 천천히 심호흡을 3회 정도 한다.



가족과 생이별, 병마까지 '생계 막막'

빛도 들어오지 않는 단칸 방, 거동이 불편하지만 병원을 함께 가 줄 가족도 없고, 친구라고는 하루 종일 틀어 놓으면 멈추지 않고 나오는 텔레비전과 한 번씩 돌봐주시는 주인집 어르신 뿐. 오늘도 동구청에서 가져다 준, 고마운 도시락으로 어렵사리 끼니를 해결한다.

단란했던 가족, 연이은 불행에 풍비박산…

박종진 씨(64세)는 한때 서울에서 유명한 절을 지을 정도로 인정받는 목수였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아 가족과 행복한 30대를 보낸 박종진씨는 남들보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서울에 작은 집 한 칸을 장만할 정도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고 스무 살에 은행으로 취직한 큰 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딸은 카드를 만들어 호화 생활을 즐겼는데, 어느 날 큰 딸이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가 몇 천 만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고, 카드 값을 갚기 위해 가족들 모두가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던 중 박종진 씨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45살에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오게 됐다. 가족과 함께 내려오기를 원했으나 서울에 서 자리 잡고 사는 가족들에게는 울산행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강요하지 않고, 주말부부를 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외로움이 고향땅을 밟으며 굳게 먹었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박종진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정에 소홀해지자 가족간의 불신이 쌓여갔다. 빚을 갚기 위해 선택한 귀향이 부인과 이혼을, 자녀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결국 이혼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재산은 모두 아이들과 전처에게 주었고, 인연이 거의 끊기고 말았다.

두 번의 심장 혈관 질환, 혈액암 수술까지

울산에서 고단한 신세가 된 박종진 씨, 2001년 큰 태풍이 온 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낙상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목에 쇠를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6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다.

쉬는 동안,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박종진 씨는 발은 불편하지만, 걷는 것과 활동이 가능해지자 조카사위의 소개로 인력회사에 일당직으로 하루하루 일을 시작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에 발목의 고통까지 참아내며 열심히 일을 하니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가 싶었다. 하지만 끝없는 병마가 박종진 씨의 몸과 마음을 허물어갔다. 지난해에는 일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더니, 심장 혈관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 곧바로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지만, 박종진 씨의 가슴 통증은 계속됐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은 결과, 심장에 문제가 남아있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재수술을 마치고 몸을 추스르는 박종진 씨가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상하게 목 옆에 하나, 둘 생기던 혹이 그 전조였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몸의 회복을 소망했지만, 되레 다른 환자로부터 옴이 옮아 박종진 씨의 온 몸에는 수술 자국과 손톱으로 긁은 상처가 가득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박종진 씨는 이제 힘들어도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번의 수술 그리고 다달이 드는 진료비와 약제비로 이미 저축해 놓은 돈은 다 써버렸지만 일을 하기에는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 지병에 혈액암까지 무수히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박종진 씨에게는 힘겨운 일과다. 식단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마저 동구청에서 하루 한 끼 주는 식사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건 제가 잘 하지 못한 탓이죠.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할 뿐이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실수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와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지만, 몸이 아프니 가족 생각이 간절하네요"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전, 박종진 씨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 계좌

농협 815123-56-062399(예금주 : 박종진)

“소변에 피가 섞여나오면 모두 혈뇨인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혹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소변에서 피를 볼 수 있다.
‘혈뇨’는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신호와 같은데, 이 질병의 발생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혈뇨’는 어떤 질병인가요?

혈뇨란 소변에 적혈구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적혈구가 소변에 많이 존재한다면 육안으로 선홍색이나 핑크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뇨가 있더라도 적혈구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변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를 현미경적 혈뇨라 부릅니다.

병원에서 혈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큰 병에 걸린 건가요?

소량의 혈뇨가 한번 있었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혈뇨는 여성의 경우 생리, 감염, 운동 또는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요로감염이 있습니다. 요로계 어느 부위에서나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방광이나 콩팥에 생긴 염증에서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로에 결석이 있는 경우나 암이 있는 경우에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격한 운동 후나 콩팥, 요도 부위가 외상을 입을 경우 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뇨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더욱 쉽게 나타납니다.

피가 나면 왠지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혈뇨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혈뇨 자체만으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피가 많이 나서 응고된다면 소변 배출이 되지 않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혈뇨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이 원인이라면 발열, 오한, 오심(메스꺼움)과 감염 부위의 통증이 있고,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거나 배뇨 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석이 원인일 경우, 결석 부위의 심한 통증과 함께 오심과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뇨가 생기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혈뇨는 신장에서 요도구까지 이르는 요로 부위의 출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혈 부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를 찾기 위해 소변 검사 및 혈액 검사, 신장 초음파나 CT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신장에서 시작된 출혈의 경우, 원인이 되는 신장질환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 및 단백뇨 검사, 신장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요로의 출혈인 경우 방광 내시경, 암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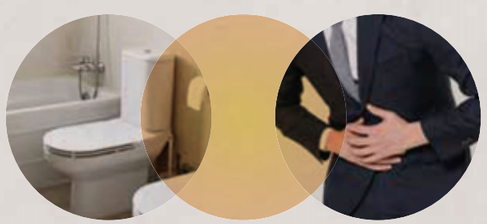
혈뇨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과 관련 있는 경우, 운동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감염인 원인이라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혈전 용해제와 같은 약물로 인한 혈뇨는 약제 중단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또 결석이나 암이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혈뇨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 약제, 콩팥 결석, 요로계 감염, 전립선염과 관련해 혈뇨가 생긴 경우, 대부분에서 치료 후 완전한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신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에서 생긴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혈뇨는 치료 후에도 회복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뇨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권택민 교수(울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졸혼(卒婚), 그리고 함께 늙어간다는 것

최근 노년부부들을 중심으로 '졸혼'이 결혼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졸혼(卒婚)'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형태다.

졸혼을 선택하려는 당신에게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젊음도 사라지는 등 다양한 상실감을 맛보며 외로움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는 무엇이든 잡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의 동반자를 놓아버리겠다는 것은 그 외로움이나 무상함보다 더 힘든 부부관계의 답답함이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별거'가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혼을 향해 가는 것이라면, '졸혼'은 따로 살지만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각자 다 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느라 스스로 포기한 것들을 늦게라도 찾는다거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해보려는 시도로서 졸혼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부부관계가 '졸혼'의 긍정적인 면을 잘 살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유로움과 꿈을 찾기도 전에 혼자라는 두려움과 상실의 아픔이 더 크게 밀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며 특성에 맞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되므로, 부부의 모습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동반자로서의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구속과 의무는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을 쌓고 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아래의 내용들을 점검해봅시다.

- **부부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

부부상담을 할 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의 역할과 배경,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접근하면 싸움이 되고 맙니다.

상호존중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늘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혼자서 끌고 나가려 애쓰지 맙시다.

- **부부관계의 모습은 가변적**

자녀들의 성장과 결혼, 부부의 은퇴, 부모님의 질병이나 죽음 등 상황의 변화뿐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경험들까지도 부부관계 형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같은 모습으로 대처하면, 별일 아닌 일에도 자꾸 삐걱대며 의무와 속박의 피로도가 커져갑니다.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당신 집은 왜?"라는 말이나,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자란 가족의 문화는 참고로 하되,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의무와 당위에서 벗어나 부부가 소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심의 가정 만들기**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중심축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화합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녀가 자라서 독립할 때에도 그들의 독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경험을 통해, 부부는 안정감을 찾고 성숙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늘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자기 내면 돌아보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어긋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부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고, 확대 왜곡해서 자신도 배우자도 힘들어 하는 경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이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삶의 어려움을 혼자가 아닌 둘이 헤쳐나간다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기지 않을까요?

티격태격하지만 같이 웃고, 같이 속상해 할 수 있는 든든한 내 짝이 있다면, 또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도전에 지지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굳이 따로 떨어지는 '졸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경영진 추석 연휴 현장 점검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추석 연휴에 국내외 현장에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활로 찾기에 총력을 쏟았다.
최길선 회장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페트로나스(Petronas), 사우디 전력공사(SEC) 등 육·해상플랜트 주요 발주처의 경영진을 만나 신규 공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바로니아(Baronia) 가스플랫폼」(사진 왼쪽) 등 현장을 방문해 공정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오갑 부회장은 9월 30일 현대건설기계 인도공장(사진 오른쪽)을 찾아 현지 시장상황과 영업현황을 살핀데 이어, 10월 4일까지 동남아시아에서 현대비나신조선소 등 그룹사 현지 법인들을 차례로 점검했다.
강환구 사장은 연휴 동안 울산에 머물며 조선과 해양을 비롯해 각 공장을 점검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초대형 광석운반선 10척 수주

현대중공업이 9월 25일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과 32만5천톤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는 지난 2012년 그리스에서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한 이래 단일계약으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40미터, 폭 62미터, 높이 29.8미터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선박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LNG READY(현재 사용하는 선박연료(Heavy Fuel Oil)를 LNG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한 설계 방식)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평형수처리장치, 탈황설비인 스크러버(Scrubber/황산화물 저감장치)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종이다.

잠수함 생산 자동화 장비 개발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건조하는 3천톤급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 3번함' 건조에 새로 개발한 자동화 장비를 투입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자동화 장비(사진)는 총 4종으로, 이들 장비는 잠수함 선체의 보강재(Ring Frame)를 취부·용접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장비는 가동정보와 작업 진도율을 원격으로 수집, 분석하는 '스마트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춰, 불량률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직경 6.3미터에서 8미터까지 다양한 직경의 선체 보강재 조립 작업에 적용할 수 있어 향후 더 큰 잠수함 선체 건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에 착공한 3천톤급 잠수함은 길이 83.5미터, 폭 9.6미터 규모에 최대 항속거리 1만8천500킬로미터인 최신예 잠수함으로, 오는 2023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효율 높인 탱커 신(新) 선형 개발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선형(船型) 개발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운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에즈막스(Suezmax)급 탱커 선형 및 부가장치를 개발했다.
이 선형은 선수(船首)부 상부의 경사각을 감소시킨 '하이보우(Hi-Bow)' 형상을 적용해 거친 파도의 저항을 줄이고, 신규 선형에 적합한 프로펠러, 연료저감장치, 방향타 패키지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효율을 해상상태에 따라 7% 이상 높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선형을 내년 2월 착공하는 15만8천톤급 원유운반선에 적용할 예정이며, 탱커선 신규 수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반기 안전 대토론회 개최

현대중공업은 추석 연휴 후 첫 근무일이었던 10월 10일 '전사 안전 대토론회'를 갖고, 안전의식을 재무장했다.(사진)
이날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전사안전 대토론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안전 활동에 대한 사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부서별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끼임 사고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현대일렉트릭도 '환절기 사고예방 특별토론회'를 갖고 안전작업을 다짐했다.

신입사원 첫 월급 일부 기부

현대중공업 신입사원들이 첫 월급의 일부를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하며 사회생활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현대중공업은 10월 23일 문화관에서 신입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900여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이 기부금은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연구개발부문 신입사원 200여명이 연수교육을 받던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기간의 월급으로, 울산지역의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9월 열린 입사 1년차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4000여개의 천연 비누도 함께 전달했다.

현대일렉트릭, 태국 방콕지사 신설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전력시장인 태국의 방콕에 지사를 신설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2년 230kV급 고압차단기를 수주하며 태국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해 7월에는 태국전력청과 총 200억원 규모의 500kV급 초고압차단기(사진)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한 323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고압차단기 계약만 약 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일렉트릭은 태국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 신규 고객 개발에 자원을 집중해 오는 2021년 동남아 시장에서 고압차단기와 변압기, 회전기, 에너지솔루션 판매로 7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북미용 명품장비' 첫 선

현대건설기계가 북미 시장에 내놓을 전략제품인 '명품(名品)장비' 3종을 개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10월 26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공기영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장비 발표회'(사진)를 열고, 주요 품질 개선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소개된 장비는 3.5톤급 미니굴삭기(R35Z)와 22톤급 크롤러굴삭기(HX220), LPG지게차(30L)로 기존 제품에 비해 안전성과 작업자 편의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판매·대여한 지게차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행자 감지, 도난 방지, 과속 모니터링 등의 부가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지게차 관제시스템(Hi-Fleet)'을 개발했다.

NEWS

현대미포조선

VISION 2021 선포

현대미포조선이 10월 11일 한우리회관 체육관에서 노사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VISION 2021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대미포조선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GREAT HMD'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21년까지 매출 4조5천억원, 영업이익 1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주력선종 경쟁력 지속확대와 △전략선종 점유율 확대 △지속성장 역량강화 등 3가지 핵심 전략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한영석 사장은 'VISION 2021'의 수립 배경과 목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3가지 발전전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18년 경영개선 워크숍

현대미포조선이 10월 9일 한우리회관 중교육장에서 임원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영개선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0월 2일 각 부문별로 개최된 임원, 부서장들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설계 개선을 통한 자재 및 공수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법 개선 △구매, 간접비 최소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 부문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경영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시황회복 지연으로 내년 일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재가격 인상, 선가 하락, 수익성 악화까지 우려됨에 따라 부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진, HVS 현장 점검

현대미포조선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10월 17일부터 나흘간 현대-비나신조선(HVS)을 찾아 현장경영 활동을 펼쳤다.
현대미포조선 한영석 사장은 10월 18일 고진영 HVS법인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고품질 선박 건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19일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이탈리아 다미코사의 7만5천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3척에 대한 동시 명명식에 참석해 새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현지 파견직원 및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사우가족들을 격려했다.

기능장 29명 합격

현대미포조선 직원 29명이 최근 발표된 '제62회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기능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한 국가 기술자격으로 실무 경력 9년(산업기사 취득 시 5년)인 숙련기술자들만 응시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미포조선은 용접부문 23명, 배관 부문 4명, 에너지관리부문 1명, 가스 부문 1명 등 모두 2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상반기 시험 합격자 23명을 더하면 올해 무려 52명의 직원들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대미포조선은 4관왕 1명, 3관왕 2명, 2관왕 2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27명의 기능장을 배출하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

COT(탱커) DECK PE 신규 공법 개발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COT DECK PE 신규 공법을 개발해 COT 2척이 동시에 건조될 경우 발생되는 G/C PE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공법의 주요 내용은 G/C PE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T/P를 이용해 DECK PE블록을 블록 적치장으로 배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T/P로 블록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블록 이동용 서포터 전용 치공구를 개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신규 공법 개발로 G/C PE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정지연 만회를 위해 사용해왔던 돌관 작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척당 517맨아워(M/H:Men Hour)의 절감효과 달성이 예상된다

비상경영워크숍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위기 극복과 차별화된 생존 방안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사 경영현황과 2018년 사업 계획, 인력운영계획,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발표됐다.
매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과 선가 하락 등으로 손익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비 축소 운영과 인력 운용 효율화, 경비 절감, 공법 개선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문균 사장은 "손익 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위기극복에 혼연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LNG운반선 최초 이중연료 엔진(ME-GI) 적용

현대삼호중공업은 17만4천 입방미터급 LNG선(S857)의 강재절단식을 지난 9월 29일 가공공장 21베이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선주사의 JOHN FLAHERTY 사이트 매니저를 비롯해 DNV-GL선급,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건조를 기원했다.
이 선박은 2015년 6월 캐나다 TEEKAY사에서 수주한 멤브레인형 LNG선 2척 중 두 번째로, 길이 294미터, 폭 47.5미터, 깊이 26.4미터로 건조된다.
또, 이 선박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최초로 벙커C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인 ME-GI와 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고압 압축기로 압축한 뒤 재액화하여 탱크로 보내는 HI-ERS 장비 등이 적용된다.

소브콤플로트 PJT 설계 시공발표회

현대삼호중공업은 사상 첫 LNG 연료 추진 방식 아프라막스 탱커에 대한 '설계 시공 발표회'를 지난 9월 2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LNG 연료 추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실적선과 신조선의 차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과 협조사항 등이 발표됐다.
신조선에는 일반 아프라막스 탱커와 달리 LNG 화물창과 가스 연료 주입장치, 가스와 기름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DF엔진 등이 장착되며, 북극해 운항에 적합하도록 아이스 클래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월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사에서 LNG 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11만 4천톤급 아프라막스 탱커 4척을 수주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17일 첫 호선의 강재절단을 앞두고 있다.

NEWS 계열사 · 병원 · 학원 소식

| 현대오일뱅크 |

업계 최초 무재해 1천만 시간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가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무재해 1천만 시간'을 돌파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혼합자일렌 공장 건설(2014년)을 비롯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를 치르면서 현장의 불안전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2013년 10월 말 이후로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8월 25일부터 약 한달 간 40여개 협력회사와 함께 평균 5천여명의 작업자를 투입, '대산공장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 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서울아산병원 |

건강검진 명품서비스 1위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건강증진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7 더 프라우드(THE PROUD) 대한민국 명품서비스'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가 최근 1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소비자 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품질, 신뢰성, 대표성 등 소비자 추구가치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전담 간호사 1 대 1 상담을 통해 '고객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외래분과(13개)를 통한 신속 진료 연계 △1일 최대 수진인원(진찰인원) 제한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과거 검진고객 해피콜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울산대학교병원 |

자문형 호스피스 확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윤기)이 최근 말기 상태의 암환자는 물론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까지 대상을 넓힌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료기관이 수개월 내 사망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원에 나서는 의료서비스로 지금까지 말기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울산대학교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담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별도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진행하며, 본인부담금(암 5%, 에이즈 10%, 만성간경화·COPD 20%)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 울산대학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선보여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10월 17일부터 우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2017년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울산대학교는 △가족과 건강 '알기 쉬운 간호학(개강일 10월 17일)' △가족과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의학(11월 14일)' △앙트러프러너십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길(12월 5일)'을 차례로 개강하고 있다.
K-MOOC는 교육부가 선별한 국내 대학의 우수강좌를 공식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정 조건 이상이면 해당 대학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유치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월 10일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역 사회 및 대학과 연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공공서비스 사업을 펼친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올해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사업비 6천만원을 시범사업에 투자하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의 사업비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과학대학교는 전문 컨설턴트 3~4명이 학생 상담에 나서 취업, 창업 등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게 되며,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과 해외취업 활성화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 현대힘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현대힘스(대표: 김재훈)가 9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에서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재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처음 인증을 받았던 현대힘스는 이번 갱신으로 향후 3년간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명의의 인증패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힘스는 지난 2008년 창립한 이래 인적자원개발을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는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다채로운 표현 기법, 지역적 특색 '눈길'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현대예술관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구상작가들을 초대하는 특별展을 연다.

이번 초대전을 위해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영남과 호남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구상작가 60명이 50호 이상의 대작 한 점씩을 준비했다.

황정자, 〈사과잔치〉

풍경, 인물, 정물 등의 주제를 따뜻한 감성과 다채로운 표현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들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이자 한국여류화가협회 고문인 황정자 작가의 '사과잔치'를 비롯해 곽성은, 김영일, 류재웅, 이장우, 주미향, 한승협 등 수준급 작가들의 구상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과 연륜은 물론, 작품에 녹아 있는 지역적 특색이 이번 전시의 특별한 감상 포인트라 할 만 하다.

울산구상작가회 주미향 회장은 "대한민국 구상미술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무궁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일 특별한 전시"라며 "다양한 매력의 작품들을 고루 접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예술적 안목을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7일 성공적인 개막식 이후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구상작가 대작 특별展'에서 수준 높은 회화 작품들을 감상해보자.

| 관람정보 |

일시 2017. 10. 17(화) ~ 11. 12(일) 오전 11시~저녁 7시 30분
(입장 마감 저녁 7시, 매주 월 휴관)

장소 현대예술관 미술관 (무료 관람)

문의 ☎1522-3331

주미향, 〈교정〉

'천상의 하모니', 크로스오버 음악의 새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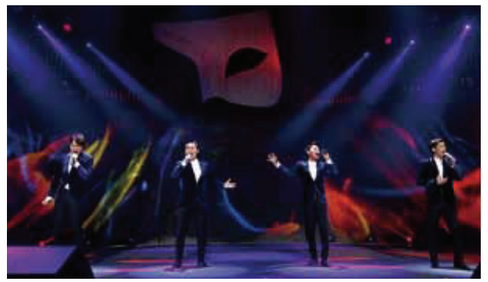
| 관람정보 |

일시 2017. 12. 15(금) ~ 16(토) /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9만5천원, A석 7만5천원, B석 5만5천원
(HHI 및 관계사 임직원 30~50% 할인)

문의 ☎1522-3331



JTBC의 남성 4중창 발굴 프로젝트 '팬텀싱어1'의 초대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Forte di Quattro)'가 2집 신보 '클라시카(CLASSICA)'의 발매와 함께 현대예술관을 찾아온다.

이들은 2017년 상반기, 데뷔와 동시에 14개 도시 16회 공연 및 앙코르 공연까지 매진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는 크로스오버 시장의 신흥강자다.

포르테 디 콰트로 1집 음반과 콘서트에서는 '팬텀싱어'에서 선보인 곡들을 비롯, 보다 대중적인 음악들을 선보였다면, 곧 발매하는 2집에서는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 말러 등 클래식 레퍼토리를 포르테 디 콰트로만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클래식 명곡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골라 크로스오버의 옷을 입힌 만큼, 한층 깊어진 음악성과 감동의 무대로 울산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2017년 최고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포르테 디 콰트로'의 완벽한 하모니를 통해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만나보자.

Profile 포르테 디 콰트로 (Forte di Quattro)

'4명의 힘', '사중창의 파워'라는 뜻의 '포르테 디 콰트로'는 뮤지컬 배우 고훈정, 테너 김현수, 베이스 손태진, 가수 이버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일 디보' 프로젝트인 JTBC '팬텀싱어1'의 파이널 라운드에서 결성된 팀으로 결선 1, 2차 무대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우승자가 되었다.

2017년 팀 결성과 동시에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DECCA Records)'를 통해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상반기 전국 투어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리그와 별 하나의 FA컵

**울산 현대가 치열했던 시즌의 마침표를 앞두고 내년 유니폼에 아로새겨질 별의 개수를 헤아리고 있다.
울산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대한민국 최강팀을 가리는 FA컵 결승전에 진출한 데 이어,
리그에서도 전북 · 제주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며 창단 첫 2관왕을 노리고 있다.**

울산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6승 11무 6패 승점 59점을 기록, 제주에 골득실만 뒤진 3위를 차지했다. 수원·서울과 승점 차이가 6점 밖에 나지 않지만, 선두 전북과도 같은 승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스플릿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울산은 김도훈 감독 체제 아래 효율적인 공격과 탄탄한 수비조직력을 갖추며 ‘쉽게 지지 않는’ 팀 컬러를 구축했다.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서울 FC를 제외한 모든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경험한 것은 물론, 대구 FC에는 전승을 거두며 승점 9점을 쓸어 담았다.

무엇보다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포항과 대구, 광주 등 하위권 팀뿐만 아니라 함께 상위 스플릿에 속한 수원과 강원에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새로운 천적 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FA컵 역시 매 경기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울산은 특급 용병 말컹을 앞세워 챌린지 리그를 평정한 경남 FC에 이어 3부 리그의 기적을 꿈꾸던 목포시청까지 물리치고 19년 만에 결승무대에 올랐다. 별 하나의 리그와 별 하나의 FA컵을 함께 헤아리는 문수구장의 가을밤에는 자랑처럼 승리가 무성할 것이다.

‘K리그 삼국지’

	전북	울산	제주
강점	디펜딩 챔피언 –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	**지지 않는 축구**	리그 최소실점 – ‘많이 넣고 적게 준다’
약점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은 최근 전적	**감독이 직접 뛰고 싶은 아쉬운 득점력**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의 불안요소 ‘경험’ 부족
키 플레이어	이동국	**이종호 & 오르샤**	마그노
상대전적	1승 1무 1패		1승 2패

울산현대 11월 경기일정

일 시	상대팀	장 소	비 고
11/5(일) 오후 3시	전북 현대	울산 문수경기장	K리그
11/19(일) 오후 3시	강원 FC	춘천 송암경기장	K리그 (시즌 최종전)

클래식의 자존심, 언더 독(Under dog)의 반란을 잠재우다.

울산 현대가 지난 9월 27일(수)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목포시청과의 2017 KEB 하나은행 FA컵 4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19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1]‘관광 연금술’을 선보이며 울산 팬들의 심장을 달군 김도훈 감독은 멘트와 달리 최정예 멤버를 출전시키며 먼 길을 달려온 상대팀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이날 베스트 라인업 가동은 당연한 일이었다. 목포는 당당히 실력을 통해 FA컵 준결승에 오른 가장 뜨거운 팀이었으며, 그에 걸 맞는 투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울산의 낙승을 예상했지만, 목포는 예상 밖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속공으로 울산을 몰아붙였다. 특히, 목포의 골키퍼 박완선은 경기 내내 신들린 선방 쇼를 선보이며, 울산의 모든 유효 슈팅을 무효화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울산은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 김인성과 박용우를 잇따라 교체 투입하며 공격 루트를 바꾸고, 수비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빌드업(build-up) 대신 김인성과 오르샤를 앞세운 파상공세를 펼쳤다. 울산의 경기력이 제 모습을 찾자 스물스물 골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후반 25분 김인성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2]‘목폰’ 박완선에게 막혔고, 이어진 박용우의 헤딩슛은 크로스바를 때렸다. 리바운드 된 볼을 이종호가 재차 슛했지만, 역시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갔다.

조용하던 경기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냄새만 풍기며 관중들을 안달나게 하던 결승골은 5분 뒤 김인성의 발끝에서 나왔다. 박용우의 스루패스를 이어 받은 김인성이 오른발 슛을 성공시키며, 울산에 결승행 티켓을 선사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목포 선수들은 일제히 그라운드 위로 쓰러졌다. 1부 리그의 빠른 템포에 맞춰 사력을 다해 뛰었기 때문이다. 처용전사들도 졌지만 잘 싸운 목포를 위해 함께 ‘목포시청’을 외치며, 그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기적을 꿈꾸던 목포의 동화(童話)에 마침표가 찍힌 순간이었다.

이날 승리로 울산은 묵은 갈증을 해갈했다. [3]지난 1998년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19년 만에 결승 무대에 오른 것이다. 김도훈 감독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목포시청이 많은 준비를 해 온 것 같다”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목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또 “이제는 울산에도 별을 달아주고 싶다”며,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

[1] 준결승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전은 이동 거리 빼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상대팀 감독의 말에 김도훈 감독과 김성환 선수는 “멀리 울산까지 왔으니, 관광만 하고 돌아가시라”며 강하게 맞섰다.

[2] 목포의 ‘부폰’이라는 뜻. 잔 루이지 부폰(Gianluigi Buffon)은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수비진을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자국 이탈리아와 소속팀 유벤투스를 당대 최강의 팀으로 만들며, 21세기 최고의 골키퍼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3] 울산의 FA컵 준결승 잔혹사 : 1996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6년

‘K리그’ 우승을 향한 울산현대축구단의 힘찬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보세요!

아궁이(어머니)

신광용 기장 |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운영부

예전 TV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에서 군인들이 "어머니"라 부르면 무대 뒤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손 흔들며 나오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이 어머니다.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숨 죽여 가슴으로 어머니를 몇 번인가 불러본다. 그러면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신기루처럼 내 어머니 얼굴이 나타난다.
외갓집은 살림이 괜찮아서 어머니는 글공부를 제법 많이 한 듯 했다.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국어책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는 책을 빌려와 누런 시멘트 종이 위에 글과 그림을 베껴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는 늘 인자했지만 여장부답게 마을 반장도 했고, 잡무가 많은 총무 일도 맡았다. 그런 탓에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닮아서 중년이 되도록 어느 모임에서든 늘 궂은 총무 일을 맡고 있다.
나는 4남2녀 막내로 도시에서 태어났다. 갑자기 기울어진 가정살림으로 늘 배가 고파 먹는 데만 온갖 궁리를 자주 하였다.
보리쌀을 삶아서 담 위에 말려두면 술래잡기한다고 몇 번 들락거리면서 야금야금 다 먹어 치워 어머니께 야단은 맞았지만, 안쓰럽게 나를 쳐다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버지 밥상 위에 남긴 흰 쌀밥 한 숟가락을 더 먹으려고 밤 늦게 기다린 기억이 난다. 동네 어귀에서 놀다가 새참 때가 되면 뭔가 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 일터를 기웃거리면 어머니는 손수 먹을 것을 챙겨주곤 하셨다. 그런 먹성으로 내 키가 남들보다 컸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참 많았다. 아버지는 운영하던 쌀가게가 어려워지자 아궁이 수리업으로 전업했다. 어머니도 같이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도왔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어머니가 그 분야에 기술자로 정평이 났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문난 의사에게 수술 날짜 받는 것 만큼이나 동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자기집 아궁이 수리 순번을 기다린다고 우리 집 앞에 장사진을 이루곤 했다.
어머니 손은 마치 요술쟁이 같았다. 쇠숟가락 하나 손에 들고 진흙으로 만든 연탄 아궁이를 매끄럽게 잘 고쳤다.
여자로서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좁은 곳에 들어가 검은 숯덩이를 잔뜩 묻은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손가락 마디마다 지문은 없어지고 손발톱이 굵어져 손톱깎이로는 어림없어 큰 가위를 사용해 손발톱을 다듬곤 했다.
어머니의 고된 모습을 보고 자란 교훈으로 일찍부터 막내 아들은 노동의 보람과 가치를 깨우쳐 현대중공업이라는 한 직장에서 40년을 줄기차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는 친손자, 외손녀 가리지 않고, 젖먹이 일곱을 업고 먹이고 재우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돌보아주셨다. 늘 입버릇처럼 울산 막내 손주까지 내가 키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막내 아들이 장가들기 일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파트 가스 보일러의 편리함에 연탄 아궁이는 어느새 잊혀졌지만 그리운 옛 부엌을 떠올리면 한결같은 모습의 어머니가 떠오른다.
누군가는 '신은 지상의 일을 모두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인간을 위해 날개를 뗀 천사를 내려 보냈는데, 그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했다. 내 삶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언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아궁이'는 내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다.

11월의 은행나무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 김재창 차장

두 해 전 이맘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제사여서 인천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등 고속버스 안에서 차창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은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조국의 산하와 들녘은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온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은행나무였습니다.
시인 고은은 저 유명한 시집 '순간의 꽃'에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노래했지만 11월의 은행나무는 너무나 찬란해 한 순간의 놓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득한 거리에서도 제 자신의 빛깔로 오롯했습니다. 한 치의 틀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행나무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쭐한 모습을 보니 한 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잘났다' 라고. 하지만 바로 옆, 그러니까 은행나무 키만큼 떨어진 곳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그 말은 못했습니다.
벌거숭이 은행나무는 참빗으로 빗은 듯 빈 가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동에 수북이 쌓인 은행잎만 아니었다면 얼마 전까지 옆의 나무처럼 찬란했던 은행나무였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이 되면 이렇듯, 찬란한 은행나무와 벌거숭이 은행나무가 나란히 서는 일이 있습니다.
절정의 찬란한 은행나무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벌거숭이 친구를 보면서 깨닫게 될 것이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벌거숭이 은행나무는 1년 뒤 옆의 친구처럼 찬란한 절정을 다시 맞을 것을 알기에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둘은 나란히 서서 다가올 겨울을 가만히 준비할 것입니다.

여행은 당장 떠나야 한다!

우정완 사원 |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바쁜 공정과 업무로 정신 없던 어느 날, 평소 해외여행을 꿈꾸던 나와 입사동기 성국이는 형연이로부터 솔깃한 말을 듣게 되었다.
"형! 후쿠오카行 배삯이 왕복 9만원이에요, 근데 특가라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못 가요"
분 단위로 표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망설일 시간이 없었고, 형인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애들아! 월차 질러보자!" 그렇게 우리의 일본 후쿠오카 여행이 시작됐다.

① 아사히 맥주공장

아사히 맥주공장은 예약없이는 방문할 수 없다. 인기가 많아 빨리 마감된다고 하니,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다.
카운터에 도착하면 예약을 확인하고, 맥주 공정이 담긴 한국어 팜플렛을 나눠준다.
견학 시 현지 가이드가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곳에서는 350ml 맥주 캔 기준으로 연간 약 8~9억개를 생산해낸다고 한다.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양이라는데, 이중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약 30%라고 한다.
한편, 아사히 공장에는 '맥주 테스터'라는 특이한 직업이 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종이컵 만한 용기로 하루에 30잔씩 마시며 맥주 맛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과연 부러운 직업인지 긴가민가했다.

② 미야자키 우도 신사

일본에는 곳곳에 신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도 신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산 '해동용궁사'와 비슷한 느낌의 이 신사는 바다를 앞에 두고 지어져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졌다.
입구에는 '토리이'라는 문이 있는데, 신의 영역과 인간세계를 구분하는 문이라고 한다.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신사에 들어선 우리는 시원하게 생긴 약수터로 발걸음을 옮겨 물을 마시던 찰나, 이 곳이 '손만 씻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일본은 유적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을 잘 유지·보수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③ 사쿠라지마 화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직 활화산이 많이 있다.
사실 사쿠라지마 화산 방문 전날 인터넷 포털 뉴스를 보니, 우리가 가기로 한 화산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화산이 폭발했다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냥 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화산활동 시기에는 학생들이 자전거 안전모가 아니라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신기한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또, 동네주민으로 보이는 청소년 무리와 청년들이 족욕을 하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부러웠다. 집 앞에서 온수로 족욕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무료로!
가볍게 족욕을 마친 뒤 차량으로 약 20분을 달려 화산과 가장 가까운 산에 도착했다. 도착과 동시에 사진을 찍는데, 아뿔싸! 화산이 폭발하는게 아닌가!
평소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리는 무서운 장면을 상상했는데, 그냥 공중으로 검은 연기가 부스스 나와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우리를 반기는 축포로 받아 들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④ 구마모토성

구마모토 여행의 필수 코스인 구마모토성. 성의 주인은 '가토 기요마사'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이다.
한국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인물이지만, 여행필수 코스인 만큼 역사의 아픔은 잠시 접어 두었다. 일본 여행 중 가장 허무했던 하루였다.

⑤ 일본 맛집 탐방

역시 여행의 묘미는 먹는 것이다. 일본에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을 나열해봤다. 일본 롯데리아 새우버거, 라멘, 오꼬노미야끼, 타코야끼, 돈가스, 카레, 스시 등 먹고 싶은게 너무나 많았다.

라멘 –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애청자인 아버지 덕에 나도 그 프로그램 애청자가 되었다. 그런데 라멘집을 들어가는 순간, 그 드라마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의 모습이 오버랩 되며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다.
평소 드라마 주인공이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맛있다'며 중얼거리는 것을 몹시 이상하게 여겼었는데, 왜그러는지 이해가 되게 만드는 라멘집이었다.

스시 – '일본'하면 '스시'다. 우리 여행 3인방은 환전을 많이 하지 못해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스시집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까지 와서 스시를 먹지 못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우리나라로 보면 '집+마트' 정도로 보이는 대형 마트에서 스시를 구매하기로 했다.
15개에 740엔, 약 7천400원이었다. 늦은 시간에 마트를 간 덕에 떨이로 구매할 수 있었다. 싸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초밥쯤 되는 퀄리티였다.
일본에 있는 동안 밤마다 떨이 스시와 맥주를 질리도록 먹고 한국에선 먹지 않겠다는 작전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걸 보면 스시는 마약인 것 같다.

돈가스 – 구마모토에서 방문한 돈가스집은 4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오전 11시 반부터 문을 열지만, 한 시간 전에 도착한 우리보다 먼저 와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한국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치고 맛있는 집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기다렸다. 내부는 일본 특유의 정갈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밥, 양배추, 장국은 무료로 리필할 수 있었고, 서양식 소스와 일본식 소스가 있었는데 일본식 소스를 추천한다.
우리는 등심 돈가스와 안심 돈가스를 주문했다. 돈가스를 한 입 무는 순간, '여태껏 나는 무슨 돈가스를 먹고 살았던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 가기 전 돈가스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편이었지만, 여행 이후 잠시 돈가스 마니아가 되었다. 울산에 맛있다고 소문난 돈가스집을 헤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맛을 아직 찾지 못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여행가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일하기 좋은 날'이라고 변한 모습이 안쓰럽다고 느껴졌었다. 하지만 약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은 일상에 지친 마음을 힐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색빛깔 우도(牛島)’에서 가을 정취 만끽

이창용 대리 | 현대일렉트릭 (회전기설계부)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우도(牛島)’는 오색빛깔 아름다움을 간직한 보물섬입니다.
여의도 3배 크기에 불과한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거무스름한 돌담길, 하얀 산호사해수욕장, 에메랄드색 수평선, 붉은 아침노을, 향토색을 띠는 제주 해녀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외지인의 발길을 사로잡죠.
앞서 제주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우도를 가지 못한 아쉬움이 늘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올해 추석연휴, 우리 가족은 우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도 여행은 이번 해 칠순을 맞은 어머니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초에 대동맥 심장판막 교환수술을 무사히 받았고 치료 경과도 좋아, 우리 가족은 이를 축하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도 여행은 준비 단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구만 아들 하나, 딸 둘을 포함해 총 다섯인데, 어머님과 형님, 형수님, 조카 하나까지 9명이 다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한달을 대기해도 동일 시간대에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어, 형님네는 김포에서, 저희 식구는 김해에서 출발해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제주도에서 우도로 향하는 날에는 날씨가 우리 여행을 방해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태풍 오듯이 쏟아졌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무작정 숙소를 떠나 선착장으로 향했지요.
다행히 선착장에서는 빗방울이 악해졌고, 우리도 우도행 여객선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우도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현지 음식인 ‘먹물 짜장’ 등을 먹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연이 선사하는 자연 풍광을 마음껏 만끽했고, 기사 아저씨의 구수한 입담 덕분에 여행도 한층 즐거웠습니다.
해안 산책길에서는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고, 우도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도 곳곳에서 해녀상(海女像)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해녀의 순박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한편, 우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3륜 구동 전기차를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안성맞춤이지만, 오르막길에서 멈추기 십상이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만든 저압전동기를 장착했다면 더욱 힘차게 오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 기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산물인 제주도 초콜릿은 우도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공항 근처입니다. 다른 곳에서 미리 구매해 짐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별 탈 없이 2박 3일 우도 여행을 다녀온 우리 가족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가을 우도는 황금빛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가을 정취를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락을 지키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특수선수중함생산부 | **이필화** 기원

우리의 전통 가락을 전수받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2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하동 사무소 장구교실이다.
영남 농악을 전수하신 정옥희 선생님이 전하동 사무소에 장구교실을 개설하고 민요, 반주 장구 등을 지도해 온지 어언 20년이 되었다.
장구교실은 일주일에 두 번(월요일, 목요일)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간반은 지역의 주부와 정년퇴직 하신 현대중공업 선배님들이다. 야간반은 대부분 현대중공업 현직 사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우를 비롯해 지게차 운전, 용접, 도장, 전기, 기계 등 하는 업무는 각각 달라도 장구교실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장구교실 교습생들은 전문 국악인은 아니지만,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민요를 구성지게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가요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
손장단을 잘 하는 사람, 춤사위를 멋지게 구사하는 사람, 하모니카를 잘 부는 사람 등 수많은 이들이 어우러져 또 다른 멋을 만들어 간다.
반주 장구에 맞추어 우리 민요를 부를 때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민요 가락에는 굿거리, 자진모리, 중모리, 엇모리, 새마치 장단 등이 있는데 이 정도만 이수하여도 경기민요와 남도민요 등 다양한 민요 가락을 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영남농악과 사물놀이도 함께 배우는데 가끔 공연도 실시한다. 괭과리(상쇠)가 선두에서 리드를 하면 징, 장구, 북, 순으로 풍악을 울리면서 행사장에 입장 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온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중들의 박수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관중들의 박수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년퇴직 이후의 취미생활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흔하지 않다. 장구장단에 맞추어 멋지게 민요 한 가락을 뽑으면 모임장소에서도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다.
더불어 장구교실 회원들은 노인정, 양로원을 찾아가 우리 민요 가락을 부르며,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은퇴 후의 삶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해도 빈말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건강한 취미 생활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장구교실 가입 문의
회장 엄병하 010-4547-0370,
총무 이필화 010-3178-3991

나의 인생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박성환 | 현대호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인생 영화'라고 지칭하는 명작들이 있다.
그 중 1998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1999년 7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내가 꼽은 역대 최고의 영화로 손꼽힌다.
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나는 늘 따뜻한 봄날을 떠올리는 동시에 우리네 인생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가슴 한 곳이 서늘해짐을 느끼곤 했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말, 독일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의 주역인 이탈리아에서 전쟁으로 인한 어두운 시기다.
그러나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주인공 '귀도'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스러운 아들 '조슈아'를 얻게 된다. 주인공의 아들답게 조슈아 또한 명랑한 성격으로 보는 이에게 절로 미소를 짓게끔 만든다.
그러나 달콤한 행복감도 잠시, 유대인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귀도와 조슈아는 강제로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게 된다. 모두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고된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그의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는다.
영화 속 귀도는 얼마나 밝은 인물이었던가.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아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유쾌함은 단순히 그의 명랑한 성격의 증거라고만 할 수 없다. 그보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아들만은 역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이 적절한 것 같다.
그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저 아들에게 이 상황이 게임일 뿐이라며 아들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어떤 이들은 영화를 보고 주인공 귀도에게 인생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이 잔인했던 그들 역사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귀도에게 있어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전쟁 발발 전에는 계급에 대한 갈등을 겪었고, 유태인이라는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고, 행복했다는 것이다.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의 인생에서 가치를 따지고 아름다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하늘에서 그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은 그의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모습이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귀도라는 인물 그 자체를 설명한다.
클래식한 음악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인생은 아름다워'. 나는 이 따뜻한 영화를 현대중공업 그룹 사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이슬란드' 여행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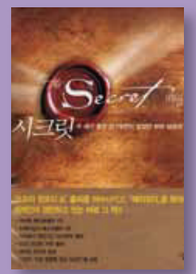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구매부 | 박지훈 차장

중세 북유럽 바이킹이 최초 발견하고 숨겨 놓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 아예 이름을 '얼음의 땅'이라 지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했다는 나라, 아이슬란드.
최근엔 인구 34만의 작은 국가가 유럽 축구강국들을 제치고 월드컵에 진출했다고 하여 주목 받고 있는 곳이다. 우리에겐 약 2년 전 '꽃보다 청춘'이라는 TV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긴 추석 연휴에 아이슬란드를 갈 계획을 잡은 나는 유튜브(youtube)와 블로그에서 아이슬란드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하며 만났던 아이슬란드 친구들에게 연락해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관광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떠나게 된 아이슬란드! 일반적인 관광 코스는 차를 렌트하여, 대한민국만한 면적의 섬나라를 1주일간 일주하는 것인데, 나는 4일간 굵고 짧게 미리 정해놓은 포인트만 찍어서 돌아보기로 했다.
아이슬란드는 아직까지 비포장도로인 곳도 꽤 있고, 지형상 곧은 길이 별로 없어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운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다녔더니, 렌터카 반납 시 하루에 평균 620km씩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으로 매년 2cm씩 벌어지는 모습이 관측되는 싱벨리어 국립공원(Thingvellir National Park)을 시작으로, 매 6분마다 지상위로 솟구쳐 나오는 간헐천 게이시르(Geysir), '꽃보다 청춘'에서 출연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굴포스 폭포(Gulfoss),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생긴 검은 모래해변과 주상절리의 조합이 어우러진 디르호레이(Dyrholaey), 만년설로 만들어진 거대한 빙하 지역 스카프타펠(Skaftafell)을 찾아 갔다.
서쪽으로는 자연이 만든 바닷가 무료 온천 플로칸두르(Flokaundur), 만화 속에서나 등장 할 듯한 예쁜 폭포 디냔디(Dynajandi)까지 가 보았고, 북쪽으로는 10분 정도 등반하면 분화구를 직접 볼 수 있는 사화산 흐베르프잘(Hverfjall), 지표에서 진흙 웅덩이가 끓고, 유황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흐베리르(Hverir), 신들의 폭포라고 불리는 고다 폭포(Godafoss)를 보고 왔다.
이번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것은 오로라였다. 그래서 4일간 밤잠을 설치며 하늘을 여러 번 확인해 보았으나, 끝내 오로라를 보지 못해 지금도 많이 아쉽다.
외계행성 같은 아이슬란드는 인간이 만든 오래된 성이나 건축물보다, 살아 숨쉬는 자연에 더 큰 감흥을 느끼는 분들께 감히 추천 드리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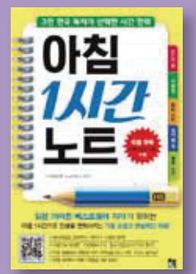
시크릿

(론다 번 著)

2007년 출판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면, 만유인력에 법칙에 따라 소망했던 내용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긍정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물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우들에게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더 나은 미래를 같이 그려보자'고 이야기를 건네며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민석 사원
현대중공업 기본계획부

2



아침 1시간 노트

(야마모토 노리아키 著)

평범하기 그지없는 지루한 일상 속에 파묻혀 살다 문득 위기의식을 느낀 저자는 아침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침 1시간'인데요.
이 책은 저자인 야마모토 노리아키가 직접 경험하고 축적한 '실천 가능한' 아침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목표를 설정하고 '1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책의 저자처럼 독자들 또한 인생을 바꿀 실마리를 얻게 될 지도 모릅니다.

김은광 사원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3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 보지 않는다

(류시화 著)

이 책은 상실과 회복에 대한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져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길',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이유' 등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언어의 낭비 없이 담백하게 써내려가 읽는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쉽게 읽히면서도 섬세하고 중량감 있는 문장들을 통해 저자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작하지 않은 작가인지라 더욱 이 책이 각별해지고,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 생동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내용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김정원 직장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4

당신의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한스라트, 에드가 라이 著)

우리들은 몸만 큰 어른 혹은 부모이지 않나요?
이 책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힘들은 모두 유년시절에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저자가 상처 입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겪어야 할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좋은 추억의 힘, 세상의 옳고 그름, 사람과의 관계, 인생의 즐거움, 용기 등 책 속의 여러 가르침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껍데기는 어른이지만, 알맹이는 여전히 아이일 뿐인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 혹은 진정한 어른으로 다가가고픈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정영훈 차장
현대중공업 조선생산지원부

5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마라

(차이웨이 著)

우리는 오늘 하루 중 얼마나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머리를 써야 할 때 너무 쉽게 흥분해서 일을 망쳐 버리고 후회합니다.
주식 투자 광풍에 휩싸여 재산을 탕진하고, 이미 끝나 버린 사랑에 매달려 자존심을 짓밟히고, 당장의 나태와 일탈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 한순간에 인생 패배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감정 과잉 시대에 중국의 자기 계발 베스트셀러 저자인 차이웨이는 쓸데없이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는 법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곁들여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정수경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1부

6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 著)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모를 때가 많죠.
또한 자신도 모르는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스피노자가 정의한 48가지 감정을 바탕으로 인간의 감정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세심하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다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어드바이스를 '철학자의 시선'으로 정제하여 담고 있습니다.

백승언 대리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7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최갑수 著)

흔한 직장인의 일상이 그러하듯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일상은 다소 반복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 책은 비록 판타지 영화처럼, 일상을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의 응원 한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맛있는 점심메뉴 등 일상 속의 작은 기쁨과 감정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책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나'에 대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우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남희수 사원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설계1부

8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청춘유리 著)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여행이 주는 다채로운 감정과 인연을 소개합니다.
또한 여행의 소소한 일상, 여행을 더욱 여행답게 해주는 음악 등을 들려줍니다.
18살 일본 교환학생을 계기로 세계 여행을 꿈꾸게 된 저자는 지금까지 약 45개국 170개 도시를 여행하며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록한 수많은 이야기로 인해 지금 당장 어디로든 떠나고 싶게 됩니다.
여행 관련 책을 읽고 싶은데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김지은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골프'와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 1

스크린 골프장에서 백스윙에 맞은 박 대리

심 차장과 박 대리는 부서 회식 1차가 끝나고 평소 자주 들리던 스크린골프장에 갔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타석 뒤 대기석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좁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 차장과 박 대리는 술에 약간 취해 있었고, 그날따라 샷이 잘 맞아서 조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 차장이 타석에서 드라이버샷 스윙을 하려던 찰나 박 대리가 화장실에 가려고 타석 뒤쪽을 지나가다가 심 차장의 백스윙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박 대리는 4일간 입원해 치료비가 500만원이 들었다며, 심 차장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심 차장은 박 대리에게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할까요?

답변 심 차장이 가해자로서 박 대리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 박 대리의 음주 및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약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심 차장의 손해배상액은 약 48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에서 연습장의 타석 뒤쪽이 좁아 심 차장이 스윙 준비 중인 경우라면, 박 대리가 심 차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의해서 움직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심 차장과 박 대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과실 바율에 따라서 치료비 및 위자료 부담이 분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례 2

골프장 작업차량에 부딪힌 최 사장

최 사장은 주말에 골프장에 갔는데, 일행보다 일찍 도착해서 연습이라도 할 겸 클럽하우스 부근에 있는 클럽정리구역에서 자신의 클럽을 실은 카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클럽정리구역을 지나가던 작업차량이 크게 회전을 하며 코너를 돌다가 미처 최 사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고, 최 사장은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는 작업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는 만큼 최 사장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 사장이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 사장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작업차량, 즉 골프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 사장이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당시 최 사장은 클럽하우스 부근의 클럽정리구역에서 있었는데, 작업차량의 회전각도가 크고 코너를 돌다가 부딪쳤기 때문에 최 사장은 미처 작업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작업차량이 클럽정리구역 내에서 코너를 돌 때 전후좌우를 살피고 저속으로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 3

라운딩 중 골프공에 맞은 이 사장

골프를 배운지 1년 정도 되는 송 과장은 모시던 이 사장과 함께 L골프장으로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일행은 캐디의 도움을 받아 공을 쳤습니다. 골프 초보자인 송 과장이 친 티샷이 러프에 빠졌고, 송 과장이 러프에서 두번째 샷을 칠 무렵 일행들의 카트가 송 과장 위치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송 과장이 친 두번째 샷은 아니나 다를까 보기 좋게 빗맞아 전방 대각선에 있는 카트 방향으로 날아갔고, 이를 피하지 못한 이 사장의 눈에 맞았습니다.

결국 실명하고 만 이 사장은 사고에 골프장의 책임이 크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장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답변 이 사장은 담당캐디의 과실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디는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해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하는 한편,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캐디는 송 과장이 샷을 하는 공의 위치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 내지 제지를 하여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서는 송 과장이 샷을 하는 선상보다 앞쪽에 카트를 둠으로써 이 사장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을 친 송 과장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골프 초보자라 샷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스케치북에 옮겨진 싱그러운 꽃밭

보타니컬 아트는 '식물(학)의'라는 뜻을 가진 'Botanical'과 '예술 또는 미술'을 뜻하는 'Art'의 합성어로, 자연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분야다.

과한 준비물 없이 색연필과 도화지만 있으면 손쉽게 배워볼 수 있어 메마른 일상 속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에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조심스레 흰색 도화지에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이다.

보타니컬 아트는 씨앗부터 개화까지 식물의 일생을 담기 때문에 마치 한 권의 식물도감을 보는 것 같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自然)의 모습은 인위적인 직선이 없고, 선 하나 하나가 전부 다른 모습이다.

수강생들은 앙증맞은 씨앗과 어여쁜 꽃을 그리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치유받는 느낌을 받는다. 내년 1월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태교로 보타니컬 아트를 시작했다는 김성미 씨(33세)는 "선을 긋는 사소함이 정성을 만나면 아름다운 꽃으로도 식물로도 그려지기에 매 작업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어여쁜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기에 마음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타니컬 아트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기초 과정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거쳐야 하는 기존의 미술 수업과 달리 보타니컬 아트는 1회 '선' 긋기, 2회 '구' 그리기, 단 두 번의 수업만으로 기초 과정이 끝난다. 이후 '나뭇잎'과 '꽃잎' 그리기가 시작되는데, 6개월 뒤엔 원하는 식물을 창작해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보타니컬 아트에 푹 빠져 8개월째 수강하고 있다는 안동숙 씨(50세)는 "진도가 빨라서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며 "작품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 마다 창작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강 6개월 만에 한마음회관 회원 전시전에 작품을 전시했고, 현재는 한국현대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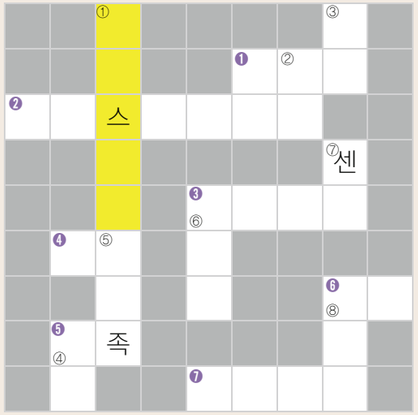
또, 보타니컬 아트는 6개월의 정규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져, 합격하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강사나 문화센터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생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취미활동으로도 인기가 높아, 김민주 강사(50세)는 "평생교육 시대에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좋은 징검다리"라며 보타니컬 아트를 적극 추천한다.

미술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데 싱그러운 꽃밭을 거닐다 온 것 같다. 꽃 길을 또 다시 걷고픈 마음, 수강생들이 수요일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닐까.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수채색 연필로 그리는 보타니컬 아트
장소 한마음회관 3층 강의실
강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수강료 12만원/3개월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❶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시회로, 조선해양산업의 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p.20 참고)

❷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사업 모델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 디지털 OOOOOOO. (p.10 참고)

❸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공장 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프트웨어. (p.13 참고)

❹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결혼의 한 형태. (p.56 참고)

❺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친족.

❻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G2'. (p.28 참고)

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시간, 공간, 물건, 경험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소비 형태. (p.4 참고)

세로 열쇠

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분할회사 및 현대미포조선 사우들이 회사의 정책 수립, 업무 노하우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p.6 참고)

② '화성의', '화성에서 온'이라는 뜻으로,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한 탐사 대원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

③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 몸은 사슴, 꼬리는 소, 발굽과 갈기는 말과 같으며 빛깔은 오색이라고 한다.

④ 소변에 적혈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신호. (p.54 참고)

⑤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준말. (p.24 참고)

⑥ 광선을 굴절, 분산시킬 때 쓰는 유리나 수정 따위로 된 다면체의 광학 부품.

⑦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을 의미하는 말.

⑧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구자복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Hotel Hyundai 울산 뷔페권(2인)
윤석필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오유리 현대중공업 해양설계운영부
홍천수 현대미포조선 생산관리부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오민석 현대중공업 기본계획부
정영훈 현대중공업 조선생산지원부
남희수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설계1부
장재훈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정유성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우상오 현대중공업 의장1부
장성환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천해식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박노현 현대중공업 특수선품질경영부
조봉주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 (2만원)
김영철 현대중공업 총무부
이용욱 현대중공업 NASR GTP공사부
이원경 대서엔지니어링
상품권 (1만원)
박영락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부
심규영 현대미포조선 안전보건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김대우 현대중공업 힘센기술1부
이상준 현대중공업 종합자재운영부
방남준 현대중공업 기계의장부

OUTBACK 식사권(5만원)
이옥진 현대중공업 판넬조립5부
정병우 현대중공업 엔진연구실
차성국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강지우 현대삼호중공업 RIG팀
케이크 교환권(1매)
황윤선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박문용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이 산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임영선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조우리 현대삼호중공업 원가회계부
정은천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한정엽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신안천일염
정옥현 현대삼호중공업 선실생산부
박문용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김용운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STARBUCKS 기프트 카드(2만원)
진정용 현대삼호중공업 도장1부
전병웅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지난호 정답

	감				르	누	아	르
다	사	인			네			
이					상	난		
빙		무			스	타		석
		궁	리				동	굴
	신	화		펜	싱			암
	돌				숭			
추	석				생	사	고	락
	함				숭			

세로 1번의 정답을 11월 17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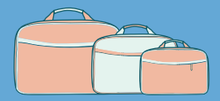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그룹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단, 이자/배당소득 및 환헤지 발생수익 등은 과세)

막차타고 여행가세요

이벤트 기간 : 2017. 10. 10 ~ 2017. 12. 31

1
계좌개설만 해도
트레블파우치 증정
(선착순 1000명)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 한도 1000만원 이상 설정
+
계좌개설 하신 고객님

2
펀드 납입 또는 ETF 매매 하시면
상품권 증정

10,000원 · 1백만원~5백만원 미만 납입 또는 적립식 월 10만원 & 3년 이상 (50명 추첨)
20,000원 · 5백만원~2천만원 미만 납입 또는 적립식 월 20만원 & 3년 이상 (50명 추첨)
30,000원 · 2천만원 이상 납입 또는 적립식 월 30만원 & 3년 이상 (30명 추첨)

3
500만원 이상
펀드 납입 또는 ETF 매매 하시면
여행상품권 증정

여행상품권 1,000,000원

1등(1명 추첨)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2명 추첨)
30만원 상당
여행용 캐리어

이벤트 유의사항
▶사은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이벤트 대상은 당사에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 미보유 고객입니다.
▶상품권은 이벤트 종료 시점 실적 유지 계좌에 한하여 2018년 1월 중 지급합니다.
▶해외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ETF 동시 가입 시 금액을 합산하여 추첨합니다.
▶5만원 이상 경품의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하이투자증권

GRAND OPEN

현대예술관
HYUNDAI ARTS CENTER

프리미엄

키즈카페 노리파크

현대예술관

현대예술관에
프리미엄급 키즈카페
노리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포츠동 1층에 위치한 키즈카페는 280㎡(약 85평)규모에
트램펄린, 정글짐, 레이싱존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파티룸, 미니 영화관 등의 재미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약문의	052-209-7997
운영시간	오전 10시 - 저녁 8시
이용요금	어린이 4,000원 / 보호자 2,000원 (1시간 기준)

44031 울산 동구 명덕로 10 현대예술관 스포츠동 1층

www.hhiarts.co.kr